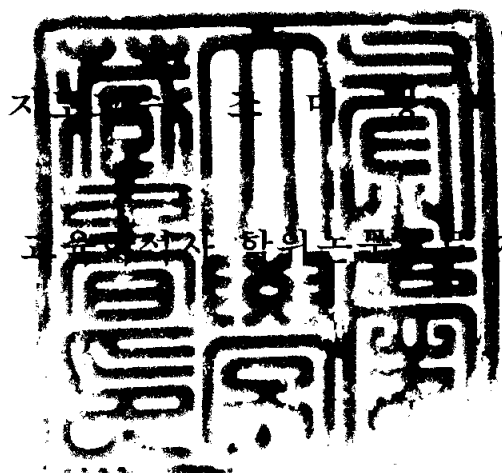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화법 영역의 교과서 분석과 교수 · 학습 방안 연구

- 중학교 「생활국어」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박 미 영

박미영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4년 6월 16일

주 심 문학박사 박 영 준



위 원 언어학박사 조 외 정



위 원 언어학박사 김 희 성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 연구	3
가. 교육과정과 화법 영역의 교과서 분석에 대한 연구	3
나. 화법 교육에 대한 연구	6
3. 연구 내용과 방법	9
 II.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화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안	 11
1.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12
가.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	13
나.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17
2. 화법 영역의 내용체계와 교수·학습 방안	22
가. 화법 영역의 목표와 내용체계	22
나. 화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안	24
 III.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과 교과서와의 상관성	 27
1. 7학년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단위과의 상관성	28
가. 7학년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	28
나. 7학년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단위과의 상관성	31

2. 8학년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단원과의 상관성	43
가. 8학년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	43
나. 8학년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단원과의 상관성	46
3. 9학년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단원과의 상관성	59
가. 9학년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	60
나. 9학년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단원과의 상관성	63
 IV. 제 7 차 교육과정 화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안과 평가.....	77
1. 바람직한 화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77
가. 7학년 화법 단원의 교수·학습 방안.....	78
나. 8학년 화법 단원의 교수·학습 방안.....	81
다. 9학년 화법 단원의 교수·학습 방안.....	85
2. 제 7 차 화법 영역의 종합적인 평가.....	89
 V. 결론.....	94
 [참고문헌].....	96

표 차 례

<표-1> 제1~6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비교.....	16
<표-2> 화법 영역의 내용 체계	23
<표-3> 7학년 교과서 학습 목표와 교육과정 내용간의 상관성	32
<표-4> 「말하기와 듣기」 단원의 학습 내용.....	35
<표-5> 「상황에 맞게 말하기」 단원의 학습 내용	38
<표-6> 「판단하며 듣기」 단원의 학습 내용.....	40
<표-7> 8학년 교과서 학습 목표와 교육과정 내용간의 상관성	47
<표-8> 「즐거운 언어 생활」 단원의 학습 내용	49
<표-9>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 단원의 학습 내용	52
<표-10> 「재구성하여 말하기」 단원의 학습 내용	54
<표-11> 「발화의 기능과 표현」 단원의 학습 내용.....	56
<표-12> 9학년 교과서 학습 목표와 교육과정 내용간의 상관성.....	64
<표-13> 「협의하기」 단원의 학습 내용.....	67
<표-14> 「듣는 힘 기르기」 단원의 학습 내용.....	69
<표-15> 「좋은 화제로 말하기」 단원의 학습 내용.....	72
<표-16>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기」 단원의 학습 내용.....	74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and Analysis of the Speech Area

Mi-Young Par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t is important to research the general features of the 7th curriculum of the Korean language and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in that it helps organize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provides standards for curriculum.

It also helps to provide standards for evalu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of Korean language. The problems found in the analysis could suggest how to improve the curriculum in the next time.

The speech area is the largest part of language in a real life, but few theories about teaching and learning of speech area has not been developed. This study researches the curriculum and Korean middle school 'Saenghwalgugeo', textbook of speech area and would provide the good speech educati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ings:

First, the general features of speech area curriculum in the 7th curriculum was researched. Then, listening and speaking part of middle-school 'Korean Conversations' was analyzed to figure out how the curriculum is actualized in a 'Saenghwalgugeo', textbook. Then, this study suggested the ways to make speech area education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Based on the research, it evaluated the speech part of the 7th curriculum.

Based on the various analyses stated above, the following results of evaluation on the speech area educations were derived.

First, the curriculum of listening and speaking is well constructed; what students learn in a grade could help to study what they learn in the next year. According to the 7th curriculum, the learning contents of each grade are organized based on 'Nature, Principal, Attitude'.

Second, the analysis of speech area section of each grade shows that the contents that students are supposed to learn in a grade are well distributed through the all chapters helping students achieve their learning goals. The textbooks of 8th and 9th grade are organized better than that of 7th.

Third, the integrated sections such as the listening and speaking section and writing and Knowledge about Korean language section are found to be needed improvements. These sections are only physically integrated in the current textbook. The textbook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for students to learn listening, speaking, writing, and knowledge about Korean language in balance; it is the goal of integrated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suggested in 7th curriculum.

Fourth, the levels of contents in the first-semester and second-semester should be in order as well as the levels of contents in each grade. It was found that the levels of chapters are not in order. What students learn in the first-semester should be preliminary to what they would learn in the second-semester.

Fifth, students should learn etiquette to use language. Etiquette has been neglect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lthough it is the most important in speech. Especially, in speech class, students need to be provided the opportunities to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of verbal violence on the Internet.

Sixth, more time needs to be spent for discussion and debate, the kernel of speech class. In discussion and debate on diverse topics, students could learn how to address their own opinions logically and widen their knowledge respecting others' opin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applied to speech class and help to increase the faculty of speech. I hope that the integrated, systematic, and realistic speech curriculum that would motivate students be developed and be used in speech classe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교육 목적의 달성에 관계되는 제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준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과정 전체를 조절·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1955년에 제정된 이후 지식의 변화, 사회 여건의 변화, 교육 이론의 발전, 현존하는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등에 의하여, 그리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 왔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개정과 관리를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국어 교육의 실천과 관련되는 내·외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수준별 학습을 통해 개별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구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국어 교과서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작업은, 국어교육의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고 수업 내용의 준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학습 방법에 관한 제안이나 안내를 이끌며 교수·학습 평가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연구의 경우 제 7 차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피상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고(여승현:2002, 임정희:2003), 설령 문제점은 찾더라도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김영태:1999, 김정훈:2001)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교과서와 국어과 교육과정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본고의 경우 실제 생활에서 그 사용빈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어렵고, 대학 입시에서 시험 출제 반영률이 낮다는 이유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화법 영역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지금까지의 화법 교육이 위축되었던 현실을 반성해 보고 실제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화법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학생들에게 화법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그 주요 내용들과 문제점을 살펴 본 후에 앞으로 다룰 연구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교육과정과 화법 교육에 관한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선행 연구 논문들을 제시하되 이를 크게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논문과 화법 교육에 대한 논문으로 나누어서 그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을 파악하고자 한다.¹⁾

1) 선행 연구에서 다룰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에 대한 연구’는 본고에서 다룰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다룬 논문들 위주로 언급할 것이며, ‘화법 교육에 대한 연구’는 화법 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소개한 논문들을 위주로 다룰 것이다.

2. 선행 연구

화법 교육과 교육과정 분석에 관한 논문은 다른 영역에 비해 그 수가 많지 않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화법 교육에 관한 이론적 교수·학습 방법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에 대한 논문과 화법 교육에 관한 논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 중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에 관한 논문은 주로 제 7 차 교육과정이 실시된 2000년 이 후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과정과 화법 영역의 교과서 분석에 대한 연구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본고와 관련 있는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 실시 이 후에 발표한 논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대(1999)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방안 연구」에서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개편되어온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제재를 중심으로 단원 구성 방식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위 논문은 방법 중심 교과서로의 책략 활동과 제 7 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관점을 반영하는 교과서로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효과적인 단원 구성을 위한 요소로 학습 내용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를 제시 할 것, 실생활에서 재응용의 직접

성이 강한 실질적 내용을 확대할 것,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킬 것,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 인접 교과와의 학습 연관성을 반영할 것, 창조적 욕구를 개발할 수 있을 것 등을 들었다. 이 논문은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화법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다양한 화법 교수·학습 방법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과서 단원 분석에 치우친 나머지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결론이 미비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정훈(2001)은 「화법 교육과정의 분석과 평가」에서 화법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며, 화법 교육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를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제 6 차와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 중에서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에는 어떤 목적이 제시되었으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는가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또한, 화법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화법 교육의 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화법 교육의 내용체계를 구성한 이론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 화법 교육의 내용은 ‘담화 유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국어’ 과목의 듣기와 말하기 교육은 분리시키지 말고, ‘화법’ 과목과 같이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제 6 차와 제 7 차 화법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 내용체계를 세분화하여 제시했는데, 그 분석 과정이 비교적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제 8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요소들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하지만, 논문 전반적으로 같은 내용의 반복이 많고, 다양한 형태의 화법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언어 예절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다.

여승현(2002)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에서 제 7 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편된 교과서를 단원설정의 합리성과 제재의 적합성, 비중의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듣기 영역과 쓰기 영역의 단원간의 연계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활동 영역의 다양화를 위해 교과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교사들이 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육과정 해설서에 치중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통계에만 치우친 나머지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임정희(2003)은 「중학교 말하기 영역의 내용 분석」을 통해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말하기 단원의 제재 내용을 분석하고, 말하기 학습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말하기 수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사전 교육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는 것과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의 말하기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 말하기 활동이 실제 생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말하기 영역의 내용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에 치우친 나머지 주장하는 바가 뚜렷하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낸다. 또한, 단원을 분석할 때 그 분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3학년 2학기 말하기 영역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²⁾.

2) 2003학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9학년의 경우, 연구 논문이 부족한 것을 시기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화법 교육에 대한 연구

모종표(1985)는 「말하기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 어린이 발표력 부진 원인을 조사하고, 학습 지도 및 생활 지도와 관련지어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연구를 시도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표현력 신장은 국어과의 지도 요소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타 교과와 생활지도와 의도적으로 연합해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서 교육의 지도 내용은 학습자 활동을 최대한 촉진시키고, 인지 발달 수준에 맞는 것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의 경우,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공이 크지만, 말하기의 목표와 내용의 제시에만 그치고 그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강성도(1988)는 「중학교 말하기·듣기 지도 연구」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 말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평소에 말할 기회가 적게 주어졌기 때문임을 밝혔으며, 학급회의에서 소집단 토의를 통해서 말하기 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음으로써 음성언어의 가능성을 열었다. 위 논문에서는 음성언어를 지도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를 실천에 옮길 교사의 자질 함양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초등과 고교 대학 일반에 걸쳐 서로 연계성이 있는 화법 수업이 이루어져야함을 연구과제로 남기고 있다.

이정만(1991)은 「중학생 화법지도 연구」에서 화법 지도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 화법지도의 목표와 이에 따른 지도 내용의 체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평가 방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학습자의 발달 단계, 말하기 목표와 지도 내용을 고려한 화법 평가표를 잠정적으로 설정했다. 이 논문은 아직 체계적인 화법 평가표가 개발되기 전에, 화법의 목표와 지도 내용에 따른 평가표를 작성·활용한 공헌도가 높다고 본다.

이주섭(2001)은 「상황맥락을 반영한 말하기·듣기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에서 말하기·듣기 교육에 대한 관점을 살피면서 말하기·듣기 영역의 통합 필요성을 도출하고, 음성언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황맥락의 구성원리를 밝혀 이를 통합적 말하기·듣기 교육의 내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기존의 말하기·듣기 교육이 결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중시한 점을 비판하고 과정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시도했다는 점과, 그 동안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던 음성 언어 소통에서의 상황적 요소를 중요한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음성언어 의사소통 현상을 교육적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들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과, 화법 교육의 교수·학습이나 평가 등 교육과정 운용이나 실천 국면에서 어떻게 이를 적용시킬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학습자 발달에 따른 학년별 교육 내용들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서 언급한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주로 통계자료에 의존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바람에 주장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김정훈:2001, 여승현:2002). 그 외에, 화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며(김성도:1988), 교과서 분석을 한 논문의 경우 2003년부터 시행해 들어간 9학년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녔다. 따라서, 본고의 경우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단순히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고, 지금까지 연구 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던 9학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을 다름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는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섯 가지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국어 지식-중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사용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듣기·말하기 영역에 대한 교육과정의 분석을 중학교 「생활국어」의 단원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제 7 차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예상해 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듣기·말하기 교육에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해 봄으로써, 제 7 차 화법 교육과정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보고,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제 7 차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특징과 화법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방안을 살펴 본 후에 둘째,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 중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체계를 교과서와의 분석을 통해 고찰해 보고 셋째, 학년별 화법 내용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에 바람직한 화법 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교과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제 7 차 국어과 화법 영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평가할 것이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효율적인 화법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제 7 차 교육과정의 전반과 특히 화법 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고, 제 7 차 교육과정 중 화법 영역의 내용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그 후에 제 7 차 화법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교과서와의 상관성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바람직한 화법 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 화법 영역의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먼저, II장에서는 제 7 차 교육과정의 전반과 화법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교수·학습 방안들을 살펴 볼 것이다. 우선 제 1 절에서는 제 7 차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성격들을 살펴 볼 것이다. 이 절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사를 간략히 살펴 본 후에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목표, 교수·학습 방법 등을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 2 절에서는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화법 영역에 해당하는 목표와 내용체계를 살펴 본 후에, 화법 교육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여기에는 화법의 정의, 특성, 화법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등이 포함된다.

III장은 제 7 차 교육과정의 화법 영역의 내용체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7학년에서 9학년까지의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와의 상관성을 살펴 본 후에, 개별 화법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화법 수업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7학년에서 9학년까지 「생활국어」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다루되, 특히 화법 영역에 해당되는 듣기·말하기 영역의 단원을 중심으로 이들 단원과 교육내용과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겠다. 이 분석에서

는 단순히 교육과정 목표와 교과 단원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는 작업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화법 수업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도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다.

IV장은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 화법 영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화법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따라서, 제 1 절에서는 학년별로 분석한 화법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화법 교육을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보겠다. 그리고 제 2 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법 교육과정의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언급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제 7 차 화법 교육과정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기에 얼마나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비교해 보고 또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보충해야 할 것인지를 제안해 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Ⅱ.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화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안

학교 교육과정은 관련 교과 내의 지식의 변화, 사회 여건의 변화, 교육 일반 이론의 변화, 그리고 현존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 등에 의거하여 새롭게 개정되어 왔다. 이에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도 이런 여러 측면에 대한 이론적 및 실제적 검토를 거쳐 새롭게 구성되었다.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 것은 사회의 변화와 교육적 관심의 변화이다. 제 7 차 교육과정은 공업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20세기 산업사회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중요시하는 21세기의 지식·정보 기반 사회, 후기(또는 탈)산업사회를 염두에 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여 학교 교육에서 ‘창의성’을 크게 강조하였고,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현재의 수준을 고려하면서 그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수준별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런 창의성과 수준별 교육에 대한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강조는 국어 교과서의 편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특히 이러한 사항들을 언어생활의 핵심으로 꼽을 수 있는 화법 교육과 연관시켜 교수·학습 시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

을 점검해 보겠다.

1.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국어교육의 실천과 관계되는 내·외적 요인(교육과정 상의 문제)을 고려하고, 개별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국어 학습 경험 제공하는 데 그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 이를 목표, 내용, 운영, 제도적 차원으로 세분해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

- 목표 -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기초·기본교육의 충실
- 내용 -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 운영 - 학생의 능력·적성·진로에 맞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천
- 제도 -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본 교육에 충실하기 위해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기본 학습활동’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적용하기 위해 ‘심화·보충 학습활동’을 따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획일적·일방적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교육 방식과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제 제 7 차 교육과정이 이전의 교육과정과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 제 7 차 교육과정 이전의 교육과정들의 전반적인 특징과 성격을 시대별로 분류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학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공포한 것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느 수준과 범위에서 가르칠 것인가를 문서로 보여주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다³⁾. 그러므로,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 교육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교수·학습 계획의 준거와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안내와 평가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제 1 차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지금의 제 6 차 국어과 교육과정까지의 변천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들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발전되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서울이 수복되고 전쟁의 상흔이 어느 정도 가신 뒤, 1955년도 8월에 제 1차 교육과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는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 가운데, ‘국어의 교육과정이 교과와 고립할 수 없으며, 모든 활동과 경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어활동의 기초가 되어야 함(문교부, 1955:13)’이라는 진술 내용이 있다. 이를 보더라도 그 때부터 국어과가 도구교과라는 분명한 인식 아래, 국어과의 위상을 크게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구미의 생활중심, 경험중심의 진보주의 교육사조⁴⁾에 힘입어 국어의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사회 형성의 의의를

3) 사전적 의미의 교육과정(敎育課程)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교재를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조직한 전체 계획이며, 이는 교과 과정, 커리큘럼, 학과 과정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4) 진보주의 교육사조는 실용주의에 기초하여 현재 생활의 유용성과 도구성을 강조하자는 사상으로, ‘교육은 현재 생활에 잘 적응하고 순응하는 아동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교육은 ‘생활의 과정’이며, 경험의 끊임없는 재구성을 통해 아동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이다. 이러한 진보주의 교육사조는 교육이념을 민주화시키고 교육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중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용적인 언어 능력 시장에 근거하여 국어교육의 목표를 강조·부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의 도구교과적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광복 이전에는 단지 간단한 표현이해의 기능학습 자체에만 목표를 두었던 데 비해, 광복 직후부터는 국어교육을 통한 문화창달 및 국민정신 함양의 큰 목표와 이를 향한 기상이 국어교육 현장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살아 있었다. 그 후, 4·19와 5·16 이후에 개정된 제 2 차 교육과정은 이런 기상과 지향점을 계속 이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어교육 목표에서 인간 형성의 의의를 좀더 강화했고, 제 1 차 교육과정 이후의 경험중심 진보주의 교육사조를 더욱 다듬어 갔다.

1968년 국민교육헌장 선포와 10월 유신 이후, 3차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제 3 차 교육과정은 이전까지 지켜오던 아동중심 교육⁵⁾에서 국가사회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아울러 국어과 교육도 민족의 정통성을 찾고, 국가사회의 가치관을 쇄신하는데 기초가 되는 교육이란 점에서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구미의 진보주의 교육사조가 본질주의⁶⁾로 바뀌면서, 우리도 이에

학제 수립에 공헌했다. 하지만, 아동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여 사회적 통제를 무시한 점과, 철저한 개인주의 경향은 사회적 요구를 도외시하고 문화적 전통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 5) 아동중심 교육의 선두 주자인 듀이(Dewey)는 경험을 통한 끝없는 성장 과정을 교육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동의 의미 있는 성장 그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되고 있다. 즉, 교육목표는 아동의 활동과 요구에 내재된 것이어야 하고, 개개 아동의 발달 수준과 흥미가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내용은 아동의 활동이나 생활을 안내하는 방향으로 기술되어야 하고,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지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6) 본질주의 교육사조는 우주의 궁극적인 실체를 찾는 관념론과 실재론이 철학적 배경이기 때문에 전통에 충실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본질주의 입장에서는 문화 유산을 후세에 전달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에 본질주의는 인류가 쌓아 놓은 문화적 유산 가운데 본질적인 것만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본질주의의 성격이 너무 보수적이고 정적이어서 참여의식과 사회개혁 의지 결여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영향을 받아 국어 특유의 지식체계로서의 어학과 문학에 관한 내용이 강조·부각되고 있다. 이런 학문중심 국어교육 관점은 80년대에 들어 개정된 제 4 차 교육과정에 더욱 강조된다. 제 4 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관점의 변화로 언어지식과 문학을 각각 별개의 영역으로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국어 관련 기존 학문에 바탕을 둔 언어지식과 문학영역을 강조함으로써, 국어 고유의 내용에 입각한 지도내용의 범주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다가 구미의 인지심리학⁷⁾의 성과가 소개되면서, 1987년에 개정한 제 5 차 교육과정부터는 학문중심의 국어교육 관점에서 기능중심의 국어교육 관으로 바뀐다. 이 변모를 통해 국어교육은 언어사용 기능 신장을 핵심으로 하여 독자성과 체계성을 꾀하게 된다. 아울러 국어교육에서 언어를 수행하는 학습자의 주체성과 실제적 활동과정과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추구가 중시된다. 그리고 이런 언어사용 과정이 사고력 신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국어교육과 사고력 신장과의 긴밀한 관계가 인식되면서 국어교육의 도구교과적 의의는 더욱 보장되어 간다.

이러한 국어교육의 특징과 위상은 90년대 초에 개정한 제 6 차 교육과정에서 언어사용에 관한 원리 학습과 전략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더욱 보완되고 다듬어진다. 그리고 제 6 차 교육과정 서두부터 기존의 국어교육 관점과 이론 가운데, 어느 하나에 얽매이기보다는 이들 모두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인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 본 제 1 차부터 제 6 차에 이르기까지의 국어과 교

7)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마음을 정보처리체계로 간주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인지심리학은 주의, 형태지각, 학습, 기억, 언어처리, 문제해결적 사고, 추리, 판단과 결정 등의 인지 과정들을 중심으로 인간 마음의 과정적, 내용적 본질을 실험적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연구한다.

육과정의 모습을 알아보자. 아래의 표는 제 1 차 교육과정 이래 지금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매우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⁸⁾.

<표-1> 제1~6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비교

시 기	연도	하 위 영 역	특 징	교 과 서
제1차	1955년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경험, 생활중심	독본, 주제, 장르
제2차	1963년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경험, 생활중심	
제3차	1973년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글짓기, 글씨쓰기)	(총론)학문중심 (국어과)경험, 생활 중심	
제4차	1981년	표현·이해/언어/문학	학문 중심	
제5차	1987년	말하기/듣기/읽기/쓰기/언어/문학	영역, 기능강조	영역별 기능
제6차	1992년	말하기/듣기/읽기/쓰기/언어/문학	영역, 기능, 초인지 강조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국어과 교육은 광복기를 지나 제 1 차 교육과정기부터 기초 도구교과로서의 특성과 의의를 인정받아온 셈이다. 그러다가 제 3 차 교육과정부터 서서히, 그리고 제 5·6 차 교육과정에서 더욱 분명히, 문식성과 더불어 사고력 신장요소가 국어과의 도구교과⁹⁾적

8)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을 하위 영역의 구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 하위 영역의 구분을 중심으로 본 제1~ 6차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과정	하위 영역	기본 관점	강조 영역
1~3 차	네 영역(말하기/듣기/ 읽기/쓰기)	언어 사용의 실용성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 모두
4차	세 영역(표현·이해/ 언어/문학)	학문주의	언어, 문학 영역
5~6 차	여섯 영역(말하기/듣기/ 읽기/쓰기/언어/문학)	기능과 지식의 절충적 입장	표현·이해의 기능과 언어 사용 전략

성격을 크게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어교과의 도구교과적 성격은 국어 교육의 위상을 높이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교수·학습 대상인 지식이나 능력 자체보다 교수·학습 주체인 학습자요인과 그 수준을 더 중시해나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국어과 교육 과정이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변화·발전되었는지 살펴보고 하겠다.

나.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교육 내용의 개인적·사회적·학문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국어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체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 9) 『제 7 차 교사용 지도서』에서 언급한 국어과의 도구 교과성 논의는 국어 교과가 학생들에게 다른 교과 학습에 필요한 도구, 즉 문자를 획득하게 하는 교과 정도로 생각하도록 한다면,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그 편협성이 지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국어과 교육을 문자 교육에 국한시킴으로써 음성 언어 활동인 말하기와 듣기를 국어과 교육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둘째, 도구 교과적 성격을 문자 읽기나 문자 쓰기로 국한시킬 경우, 3학년 이후의 국어과 교육에서는 도구 교과적 성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셋째, 국어과 궁극 목표인 언어사용 기능을 글자 읽기(decoding)나 생각을 글자로 옮겨 쓰는 글자 쓰기(transcribing)와 같은 문자의 단순 번역 기능으로 편협하게 규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어 교과의 도구적 성격을 국어 교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교과의 학습활동에서 요구되는 지적 기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1)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의 목표를 ‘전문’과 ‘하위 목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여기서 ‘하위 목표’는 다시 국어 교육의 내용으로서의 지식, 기능, 태도에 관한 학습의 결과,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도달점 등으로 세분하여 명시하였다. 즉, 국어과의 지향점이 인지적 교육 내용¹⁰⁾과 정의적 교육 내용¹¹⁾에 대한 학습을 균형 있게 하여, 지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균형 잡힌 한국인을 양성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 7 차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 교육 목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초·중·고등학교의 국어과 교육 목표를 일원화하여 제시한 점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한 교육 목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한 교육 목표와 동일하다. 다만,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과 성취 수준에 따라 국어사용 양상이 정확하고, 해석적이며, 비판적이고, 창의적 인지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점이 학교급별 성취 수준의 차이로 나타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의 마지막 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기준으로 국어과 교육 목표를 일원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제 7 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어과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인지적 교육 내용에는 ‘지식의 습득과 기능의 향상’ 등이 포함된다.

11) 정의적 교육 내용에는 ‘태도, 가치, 동기, 습관’ 등이 포함된다.

<제 7 차 교육과정에 제시한 국어과의 교육 목표>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 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의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민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 목표 성취에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인지적 교육 내용과 정의적 교육 내용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국어 교육의 내용적 특성과 관련된 성취 수준을 국어과 교육의 목표로 설정·제시하였다. 즉, 인지적 교육 내용에는 지식과 기능 요인이, 정의적 교육 내용에는 태도(동기, 흥미, 습관, 가치) 요인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전문’과 ‘하위 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어과에 성격에 규정한 사항을 중심

으로 구조화하였는데, 이는 창의적 국어 사용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식, 기능과 전략, 태도에 대한 교육 내용을 균형 있게 학습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한 데 따른 것이다.

(2)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앞서 우리는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가 인지적 교육 내용과 정서적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을 균형 있게 하여, 지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균형 잡힌 한국인을 양성하는데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제 이러한 목표가 구체적 내용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정신 구현에 적합한 내용체계를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즉, 제 7 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인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적용되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을 존중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10년을 하나의 단위로 보아 단일한 ‘내용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이 국어 교육의 최상위 목표인 ‘창조적 국어 사용 능력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내용체계를 마련하였다. 제 7 차 교육과정은 제 6 차 교육과정에 취한 국어과에 대한 관점¹²⁾을 보완하였다. 그 대신 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학습자의 창의적인 국어 사용 능력으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국어 교육의 내용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

12) 제 6 차 교육과정에 취한 국어과에 대한 관점은 언어 기능, 언어, 문학의 세 영역의 교육 내용이 국어 교육 목표 성취를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각 영역에서 선정한 교육 내용이 국어 교육의 최상위 목표 성취에 상호 보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였다.¹³⁾

셋째, 국어 교육의 내용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영역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제 6 차 국어과 교육과정까지 ‘말하기→듣기’ 순으로 제시하던 것을 제 7 차에서 ‘듣기→말하기’ 순으로 제시한 것은 학습자의 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한 것이다.

넷째, 제 4 차부터 제 6 차 교육과정까지 사용하였던 ‘언어’라는 교육 내용 영역명을 ‘국어 지식’으로 조정하였다. 그 이유는 ‘국어’의 교육 대상이 되는 언어가 ‘국어’이지 ‘언어’ 일반일 수 없고, ‘언어’영역에서 제시하였던 교육 내용의 대부분이 언어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로 ‘국어의 구조와 체계에 대한 지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역명을 ‘국어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학습자의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조직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3) 제 6 차 교육과정과 제 7 차 교육과정의 국어과 영역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문 및 하위 목표를 나타내는 방법은 6 차 교육과정의 경우 국어과 교육과 관련된 목표를 총괄하면서도 정의적 영역의 학습 성취 목표를 강조한 반면, 7 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교육의 내용으로서 지식, 기능, 태도에 관한 학습의 결과 성취하기를 목표로 설정·제시하고 있다. 둘째, 6 차 교육과정의 경우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한 언어사용 기능 신장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7 차 교육과정의 경우, 인지적·정의적인 면을 총괄한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신장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화법 영역의 내용체계와 교수·학습 방안

앞에서 우리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사항을 살펴보고,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중요시된 국어과의 목표와 내용체계들을 알아보았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화법 영역에는 어떤 목표와 내용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후에 화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안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다음 장에서 다룰 교과서와 화법 단원과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하는 일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또한, 화법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실제 화법 수업 시 부족할 수 있는 면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먼저, 화법 영역의 목표와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화법 영역의 목표와 내용체계

중학교 듣기·말하기 영역의 목표는 ‘화법의 이론을 이해하고, 말하고 듣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화법¹⁴⁾의 본질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목적, 대상, 내용을 고려하여

14) 현행 화법 교과서에서는 화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먼저, 박갑수 외(1996:11)에서는 ‘논리적이면서도 설득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을 화법이라고 일컫게 되었다. <중략> 또한, ‘화법’이라는 말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잘못된 말하기, 듣기를 상담, 치료해주는 방법이나 기술까지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로 화법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주행 외(1996:28)에서는 ‘화법이란, 말하는 이가 일정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듣는 이에게 음성 언어나 몸짓, 표정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각 영역을 ‘본질, 원리, 태도’의 인지적 측면과 ‘실제’의 정의적 부분을 통합적으로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화법 영역의 내용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화법 영역의 내용체계

영역	내용		
듣기	· 듣기의 본질 - 필요성 - 목적 - 개념 - 방법 - 상황 - 특성	· 듣기의 원리 - 청각적 식별 - 내용 확인 - 추론 - 평가와 감상	· 듣기의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 듣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말 듣기 - 정서를 표현하는 말 듣기 - 설득하는 말 듣기 - 친교의 말 듣기		
말하기	· 말하기의 본질 - 필요성 - 목적 - 개념 - 방법 - 상황 - 특성	· 말하기의 원리 - 발성과 발음 - 내용 생성 - 내용 조직 - 표현과 전달	· 말하기의 태도 - 동기 - 흥미 - 습관 - 가치
	· 말하기의 실제 - 정보를 전달하는 말 하기 - 정서를 표현하는 말 하기 - 설득하는 말 하기 - 친교의 말 하기		

등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이것을 ‘화술(話術)’ 혹은 ‘스피치(speech)’라고 일컫기도 한다.’로 화법을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조규일 외(1996:8)는 ‘화법은 ‘말을 한다’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포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로 화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화법 영역의 내용체계를 ‘본질’, ‘원리’, ‘태도’, 그리고 이 세 영역에 모두 걸치는 ‘실제’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본질’의 내용은 국어과의 인지적 내용으로, 명제적 지식 범주의 교육 내용을 의미하며 ‘필요성, 목적, 개념, 방법, 상황, 특성’ 등으로 제시된다. ‘원리’의 내용은 방법 또는 절차적 지식 범주의 내용으로 설명되는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영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태도’의 내용은 심리적·물리적 요인으로서 ‘자세, 태도, 습관, 흥미, 동기, 가치’ 등의 정의적 교육 내용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실제’의 경우, 학습자가 이해하고 표현해야 할 ‘실제(언어 자료/텍스트)’ 차원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며, ‘실제’ 범주의 교육 내용은 ‘본질’, ‘원리’, ‘태도’ 범주의 교육 내용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나. 화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안

이제 지금까지 언급한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화법 영역의 목표와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화법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교수·학습 방안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정리해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법 수업은 영역별 학습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전개¹⁵⁾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여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신장시키고, 언어 현상을 지나치게 분석하는 집단 방식을 지양하여 국어 사용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또한, 지식을 주

15)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강의, 토론, 시연, 실험, 현장조사, 놀이, 역할극 등이 있다.

변 세계의 언어 자료나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지도함으로써 지식의 생성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외에도 문제 해결 과정¹⁶⁾과 구체적인 해결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해결 과정과 그 방법도 중시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언어 수행에 대한 자기 점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람직한 국어사용의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강의, 토론, 현장 학습, 협동 학습 등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에 적합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교수·학습을 전개해야 한다. 이는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강조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국어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특히 토의나 토론 학습 같은 화법 수업을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교수·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본질, 원리, 태도’의 학습 내용이 ‘실제’의 국어사용과 연관되도록 교수·학습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듣기 지도에서는 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화자의 관점과 의견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학습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화법 수업에서는 말하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말하되, 적극적이고 협동적인 태도로 의견을 교환하는 학습활동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화법 지도에서 교사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교사는 표준 발음으로 논리에 맞게 말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투리로 구수하게 호소¹⁷⁾할 줄도

16) 문제 해결 과정은 일반적으로 ‘문제 인식-문제 이해-해결 계획 수립-해결 시행-반성’의 단계를 거친다.

17) 사투리가 표준에 비해 지방색과 현장감을 잘 드러낼 수 있으며, 사투리를 사용하면 다양하고 재미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색이 드러나는 문학 작품을 낭독하거나, 역할극을 할 때, 때로는 설득 화법에서도 사투리의 사용이

알아야 한다. 즉 교사는 수업 진행의 화법과 개인 면담을 위한 화법의 맥락을 달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설명과 논증의 담화가 논리적이려면 면담과 설득의 화법은 정서에 닿아야 하듯이 교사는 화제를 유창하게 이끌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화법 지도는 전략적 설계와 개별적 훈련 못지 않게 교사의 시범이 중요하다. 성격에 맞는 기능 지도는 수업이 얼마나 실질적이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는 유창한 말하기로 모범을 보이는 가운데 학습자가 인접 발달 영역¹⁸⁾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것은 교사의 열린 마음, 학습자의 적극적인 활동,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화법 교수·학습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인터넷이나 방송 화법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생활인 양성을 위한 토의·토론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 방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하다. 이러한 화법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틀이 확립되어야 비로소 국어과 교육과정 속에서 화법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유용할 수 있다.

18) 최근의 교육사조 중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scaffolding’이다. 여기서 ‘scaffolding’의 사전적 의미는 ‘비계’로 이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할 때 인부들이 건축재료를 운반하며 오를 수 있도록 건물 주변에 세우는 장대와 두꺼운 판자로 된 발판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계 학습이란 아동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활동을 이끌기 위한 지원체계 및 또래들간의 상호작용을 말하며, 아동들의 인지적 발달은 물론 창의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총체적인 교수 전략을 말하는 것이며, 근접발달이론(ZPD :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을 근거로 하고 있다. Vygotsky는 근접발달지대를 “독립적인 문제해결에 의해 결정된 실제적 발달수준과 성인의 안내 혹은 보다 유능한 동년배와의 공동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에 의해 결정되는 잠재적 발달수준간의 거리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Ⅲ.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과 교과서와의 상관성

앞의 두 장에서 우리는 제 7 차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특징과 내용체계를 살펴보고, 화법 영역(듣기·말하기)의 주요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제 이를 토대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의 교과서 내용을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내용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각의 분석은 중학교 「생활국어」의 듣기·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외에 통합적인 교육에 따라 다른 영역(쓰기, 국어 지식 등)과 이들 영역이 혼합되어 있는 단원의 경우, 듣기·말하기 영역에 해당하는 소단원과 학습활동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것은 본고가 국어과의 총체적인 교과과정의 분석이 아니라, 화법 영역의 내용만을 그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먼저 7 학년에 나타나는 학년별 내용을 알아보고, 이러한 학년별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 교과서 단원을 분석해 보자.

1. 7학년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단원과의 상관성

7학년 교과서는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1학기에는 3개의 단원이, 2학기에는 2개의 화법 단원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본고에서는 이들 단원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과 이들 단원의 학습 목표들을 분석·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단원을 학습활동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해 보겠다.

가. 7학년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

7학년의 화법 영역은 크게 말하기·듣기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학년별 내용은 학습의 위계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특히,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학습을 실재에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학년별 내용의 세부 사항을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 제시했다¹⁹⁾. 먼저 7학년에 명시하고 있는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기본】 활동은 모든 학습자가 기본 학습만 충실히 이수하면, 해당 교육 내용과 관련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구안되었으며, 학년간의 계열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었다. 한편 【심화】 활동은 【기본】 학습활동과 관련된 보다 심화된 학습활동(폭과 깊이의 심화)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구안되었으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급 학년의 【심화】 활동과 상급 학년의 【기본】 학습활동이 중복되거나 단순히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7학년 듣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²⁰⁾

[7-(1)] 듣기와 읽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기본】 동일한 내용을 글로 읽을 때와 말로 들을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심화】 듣기가 읽기보다 효과적인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를 안다.

[7-(2)]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듣는다.

【기본】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사실을 표현한 부분과 의견을 표현한 부분을 구별하며 듣는다.

【심화】 의견을 표현한 부분이 사실을 표현하는 부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말한다.

[7-(3)] 내용의 짜임을 파악하며 듣는다.

【기본】 이야기를 듣고, 내용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심화】 들은 내용의 짜임을 그림으로 나타낸다.

[7-(4)] 내용의 통일성을 평가하며 듣는다.

【기본】 토의나 토론을 듣고, 참여자들의 말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평가한다.

【심화】 내용의 통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안다.

[7-(5)] 메모하면서 듣는 습관을 지닌다.

【기본】 설명이나 보고를 들을 때, 메모하면서 듣는다.

【심화】 자신만의 효과적인 메모 방법을 개발한다.

20) 교육부(1999), pp. 25~29 참고

< 7학년 말하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²¹⁾

[7-(1)] 말하기와 듣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기본】 말하기와 듣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한다.

【심화】 말하기와 듣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을 쓴다.

[7-(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기본】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말한다.

【심화】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의 종류와 활용법 등을 안다.

[7-(3)]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말한다.

【기본】 효과적인 내용 전개 순서를 생각하여 메모하고,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말한다.

【심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한다.

[7-(4)]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어투로 말한다.

【기본】 상대와의 사회적 관계, 상대의 출신 지역, 말하는 곳의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어휘, 억양, 어조, 강약을 달리하여 말한다.

【심화】 동일한 사람이 사회적인 역할이 바뀔에 따라 어투가 달라지는 현상을 조사한다.

[7 (5)] 말하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학급이나 학교, 지역 사회, 소모임 등을 대표하여 말하기

21) 교육부(1999), pp. 29~34 참고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심화】 능동적으로 말하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사회적 공헌에 대하여 토의한다.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7학년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의 경우,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고려하여 구체적 활동들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7학년이 중학교 과정에서의 저학년임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지식의 습득보다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여러 요소²²⁾들이 학년별 교수·학습 자료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은 책보다는 컴퓨터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의 경향을 잘 파악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 외에도 단순히 듣고·말하는 활동보다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 요소²³⁾들이 내용 학습에 많이 반영되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학년별 내용들이 실제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단위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나. 7학년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단위와의 상관성

이미 살펴 본,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 7학년의 학년별 내용은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은 화법 교수·학습에 있어 중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22) 학생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에는 들은 내용의 짜임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 인터넷·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정보 수집하는 활동 등이 있다.

23)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 요소에는 자신만의 효과적인 메모 방법 개발하기, 자신이 말한 내용을 녹음하여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기 등이 있다.

7학년의 경우 제 7 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에 따라 통합적 교육이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교과서 단원에서도 듣기나 말하기를 함께 다루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 영역을 다른 영역(쓰기나 국어지식 영역)과 통합해서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듣기·말하기 단원을 분석하고, 이들이 앞서 제시한 학년별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단원의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의 표를 통해 이를 비교·분석해 볼 것이다. 여기서 7학년 2학기 1단원 「생활과 글쓰기」 중 소단원 「(1) 생활 속의 글쓰기」는 「쓰기」 영역에 속하므로 그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표-3> 7학년 교과서 학습 목표와 교육과정 내용간의 상관성

학 기	교과서		교육과정	
	대단원	소단원	학습 목표	교육과정 내용
1	2. 말하기와 듣기	(1)말하기와 듣기의 특성 (2)말하기와 듣기의 여러 가지 모습	· 말하기와 듣기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내용의 짜임을 파악하며 들을 수 있다.	7-말-(1) 7-듣-(3)
	3. 정보 수집하기	(1) 정보 수집 방법 (2) 정보 수집 연습	·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수집한 내용이 주제와 어 울리는지 평가할 수 있다.	7-말-(2) 7-듣-(4)
	6. 상황에 맞게 말하기	(1)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 (2)상황에 맞게 말하는 연습	· 담화 상황을 구성하는 요 소를 알 수 있다. ·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 다.	7-말-(4) 7-말-(5)

학기	교과서		교육과정	
	대단원	소단원	학습 목표	교육과정 내용
2	1. 생활과 글쓰기	(2)영화 소개하기	· 쓰기와 말하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7-말-(2) 7-말-(3)
	3. 판단하며 듣기	(1)내용을 정리하며 듣기 (2) 내용을 판단하며 듣기	· 내용을 정리하며 들을 수 있다. · 내용을 판단하며 들을 수 있다.	7-듣-(2) 7-듣-(3) 7-듣-(5)

위 표를 분석해 보면 학습 목표와 교육과정 내용의 관련성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 듣기와 말하기의 영역이 고루 분포되어 교과서 학습 목표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번 이상 나오는 교육과정 내용이 있는가 하면(7-말-(2), 7-듣-(3)),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교육과정의 내용도 있다(7-듣-(1)). 이러한 교육 내용의 편중화 현상은 구체적인 단위 분석을 통해 보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개별 단위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분석할 단위들은 위에 제시된 표에서 듣기·말하기 영역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1학기의 2단원 「말하기와 듣기」, 6단원 「상황에 맞게 말하기」, 2학기의 3단원 「판단하며 듣기」의 3개의 단원으로 하겠다.²⁴⁾ 각 단원의 분석은 첫째, 교육과정 내용과 개별 단위간의 상관성을 밝힌 후 둘째, 각 단원의 ‘학습활동’을 통해 화법 수업을 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4) 1학기의 3단원 「정보 수집하기」는 화법 교육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다른 영역의 학습-쓰기, 읽기, 국어지식-을 위한 선수 학습의 성격이 강했고, 2학기 1단원 「생활과 글쓰기」 역시 쓰기 영역의 교육에 치우친 학습활동이 많아서 그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 1학기 2단원 「말하기와 듣기」 분석

인간의 언어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말하고 듣는 행위이다. 하지만 일생 생활에서는 듣고 말하는 행위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단원은 학생들에게 말하기와 듣는 활동의 중요성과 특징을 알게 하고, 올바른 방법과 태도로 실제 언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해 설정되었다.

이 단원은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내용 중에서 특히 7-말-(1) ‘말하기와 듣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와 7-듣-(3) ‘내용의 짜임을 파악하며 듣는다.’와 관련이 있다²⁵⁾.

따라서, 소단원 (1)에서는 ‘말하기와 듣기의 특성’이라는 글을 통해 말하기와 듣기가 중요한 이유와 그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단원 (2)에서는 여러 가지 말하기 상황을 통해 말하기 준비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올바른 대화 태도를 기르는 활동 중심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충·심화에서는 대화를 분석하고 고치는 활동, 자신의 듣기 태도를 반성하는 활동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5) 본고 pp.32~33 참고

<표-4> 「말하기와 듣기」 단원의 학습 내용

구 분		교수 · 학습 내용
(1)말하기와 듣기의 특성	바탕 학습	· 말하기와 듣기의 일반적 의미 파악하기
	활동 1	· ‘말하기와 듣기의 특성’을 읽고, 말하기와 듣기의 특성 알기 · 평소 말하기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기
(2)말하기와 듣기의 여러 가지 모습	활동 1	· 친구를 소개하는 말을 통해 말하기와 듣기의 특성 이해하기
	활동 2	· ‘취미’를 소재로 한 말하기와 듣기 활동을 하고, 말하기에서 준비의 필요성 알기
	활동 3	· 대화 상황에서 잘못된 점 찾아보기
보충 · 심화	자기 점검	· 학습 내용 점검하기
	활동 1	· 친구에게 우리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약도로 그리고 설명하기
	활동 2	· 어떤 한 가지 화제에 대하여 가족이나 친구와 나눈 자기의 대화를 분석하고 고쳐 말하기
	활동 3	· 시 ‘나 듣게 하소서’를 읽고, ‘듣기’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고 자기의 듣기 태도 반성하기

먼저 소단원 (1)은 말하기와 듣기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고, 평소 자신의 대화에서 말하기 · 듣기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예를 찾아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구체적 활동을 보면, 말하기와 듣기가 중요한 이유와 말하기와 듣기의 특성을 적어 보는 활동 이후에 자신의 경험에서 말할 때 겪었던 어려움을 말해 보는 활동이 제시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순서를 뒤바꾼 활동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체험했던 사건 중에서 대화 도중 의미가 통하지 않아 곤란했던 기억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원인을 파악하게 하고, 그 이후에 말하기·듣기 활동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혹은 특성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말하기·듣기 활동의 필요성을 직접 강의하는 설명식 교수·학습 방법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말하기·듣기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이 학습 동기 유발에 더욱 효과적임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경험을 통해 말하기·듣기 상황에서의 곤란했던 점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 벗어나,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 방법까지 찾아보는 활동이 보충되어서 실제 생활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학습 내용이 적용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단원 (2)는 친구를 소개하는 활동, 말하기 준비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활동, 듣는 태도에 관해 생각해 보는 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나의 취미’에 관해 친구의 말하기 활동을 평가하는 항목²⁶⁾에서, 평가 항목에 대한 선수학습 요소가 부족하다. 여기서 다섯 번째 평가 항목인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짜임새 있게 말한 경우는?’이라는 문항을 보자. 이 문항은 학생들에게 제시되기 전에 ‘내용의 짜임새’에 관한 설명인 통일성, 일관성, 강조성의 원리²⁷⁾에 관한 선수학습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단

26) 교육인적자원부(2001나), 『중학교 생활 국어 1-1』, p.44 참고

27) 단락 구성의 원리는 통일성(유기성 : coherence), 일관성(연속성 : continuity), 강조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통일성이란 각 단락을 이루는 재료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선택되어야 하며, 한 단락에는 소주제가 하나만 있어야 하고, 글을 쓸 때에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만을 택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관성이란 단락을 이루는 모든 재료들은 일정한 체계에 의해 짜여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재료란 소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고, 일정한 체계란 ‘시간적 순서’, ‘공간적 순서’, ‘논리적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강조성은 소주제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두드러지게 서술하여 그것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을 ‘충분한 뒷받침의 요건’이라고도 부른다.

순히 상대방의 발화 내용의 짜임을 파악하는 것과 그것을 바르게 평가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는 학습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평가 기준이 되는 여러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1학기 6단원 「상황에 맞게 말하기」 분석

이 단원은 학생들에게 담화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를 알게 하고, 이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말하고 듣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학년별 교육 내용에서는 7-말-(4)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어투로 말한다.'와 7-말-(5) '말하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²⁸⁾. 이에 소단원 (1)에서는 담화의 개념과 담화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학습하고, 소단원 (2)에서는 앞서 배운 담화 상황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설득하는 말하기를 실제로 수행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보충·심화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활동과 듣기 태도를 강조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이를 활동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8) 본고 pp.32~33 참고

<표-5> 「상황에 맞게 말하기」 단원의 학습 내용

구 분		교수 · 학습 내용
(1)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	바탕 학습	· 담화를 구성하는 요소들 이해하기
	활동 1	· 듣는 사람의 지식수준, 관심, 요구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 알기
	활동 2	· 말하는 상황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활동하기 · 분위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 인식하기
	활동 3	· 연설문을 읽고, 상황에 맞게 말했는가 평가하기
(2)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	활동 1	· 상대방을 고려하고, 뒷받침하는 근거를 들어가며 설득하기
보충 · 심화	자기 점검	· 학습 내용 점검하기
	활동 1	·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솔직히 표 현하기
	활동 2	· 듣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 비교하기

먼저 소단원 (1)은 담화 구성 요소를 학습하고, 말하는 상황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활동과 연설문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단원에서는 담화 구성 요소로 말하는 목적, 말할 대상, 시간적·공간적 조건, 이야기의 흐름, 분위기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담화 구성요소 중 특히 말할 대상과 분위기에 치중되어 학습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학습을 위해서는 담화를 구성하는 다른 여러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학습활동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소단원 (2)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어머니에게 설득시키는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설득시키는 하나의 상황만을 가정하고 학습활동을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여러 가지 중학교 학생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들²⁹⁾을 설정하고, 각 상황에 따라 말하기 연습을 다양하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학습 방안이라 생각된다.

보충·심화 활동에서는 친구와 부모님의 입장을 역할을 바꾸어서 말하는 활동이 있는데, 이 활동은 상대방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담화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이다.

(3) 2학기 3단원 「판단하며 듣기」의 내용 분석

이 단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내용을 정리하고 판단하며 들을 수 있는 올바른 듣기 방법과 태도를 기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에서는 ‘7-듣-(2), 7-듣-(3), 7-듣-(5)’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³⁰⁾.

이에 소단원 (1)에서는 듣기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정리하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듣기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소단원 (2)에서는 제시된 듣기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들은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여 보고, 들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 활동이 중심을 이룬다. 이를 소단원별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된다.

29) 중학교 학생 수준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설정해 본다면, ‘용돈 올려주기, 친구와의 여행 허락 받기, 학원에 다니기’ 등이 있다.

30) 본고 p.29, pp.32~33 참고

<표-6> 「판단하며 듣기」 단원의 학습 내용

구 분		교수 · 학습 내용
(1) 내용을 정리하며 듣기	바탕 학습	· 정리하며 듣기의 개념 파악하기
	활동 1	· ‘여량 읍내는~’의 내용을 메모하며 들으며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 이해하기
	활동 2	· ‘어느 시골 학교에서~’의 내용을 들으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듣는 방법 이해하기
	활동 3	· ‘극심한 봉황이~’의 내용을 들으며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정리하며 듣는 방법 이해하기
	활동 4	· 이야기를 화제별로 정리하며 듣는 방법 이해하기
(2) 내용을 판단하며 듣기	바탕 학습	· 판단하며 듣기의 개념 파악하기
	활동 1	·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여 듣는 방법 이해하기
	활동 2	· 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하며 듣는 방법 이해하기
	활동 3	· 의견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 방법 이해하기
	활동 4	· 의견과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 방법 이해하기
보충 · 심화	활동 1	· ‘삼살개는 천연 기념물~’의 내용을 들으며 메모하며 듣는 방법 이해하기
	활동 2	· ‘옛날에~’와 같은 민담을 들으며 일정한 순서로 정리하며 듣는 방법 이해하기
	활동 3	· ‘과주에서~’의 내용을 들으며 화제별로 나누어 정리하며 듣는 방법 이해하기
	활동 4	· 화제를 정하여 말할 내용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거나 판단하며 듣기

위의 단원별 학습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7학년 듣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의 대부분이 이 단원의 교과서 학습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소단원 (1)의 경우, 들은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을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긴 지문을 들은 후에 그것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는 학습활동이 많다. 그런데 중학교 저학년 수준의 듣기 지문이라면, 쉽고 짧은 예문의 듣기 활동을 먼저 여러 차례 수행한 후에 긴 지문을 듣는 활동이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비교적 긴 지문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또한, 듣기 수업의 초기 단계에는 학생들이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들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답해야할 주요 질문들의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듣기 활동을 하는 학습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했다.

소단원 (2)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거나, 광고문에서 과장된 부분을 찾아보는 활동이 있다. 이 단원은 여러 가지 종류의 듣기 활동을 나열해서 학생들에게 이를 능동적으로 듣게 하는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한 학습활동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학생들이 매일 수없이 접하는 광고문의 경우, 더 많은 지문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광고 내용상의 비판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단 하나의 지문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져 있어서 다소 아쉬웠다.

보충·심화 활동의 경우 기본 학습활동보다 그 듣기 내용이 어렵게 구성되었으며, 옛날 이야기, 반구정과 압구정의 비교, 자신의 흥미 있는 화제 고르기 등 듣기 영역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특히 이 활동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화제가 적절히 선정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7학년 듣기·말하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이 실제 교과서의 학습 목표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학습 목표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중복된 것이 없는지를 중학교 「생활국어」에 나오는 듣기·말하기 영역의 학습활동을 분석해 봄으로써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밝혀진 일련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7학년 듣기·말하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을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서 그 위계성과 체계성이 확립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교과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7-말-(2)’처럼 학년별 내용이 중복되거나, ‘7-듣-(1)’과 같이 아예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학년별 내용이 있었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공적인 대화로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 토의나 토론에 관한 선수학습이 많이 부족하였다.

둘째, 7학년의 경우 듣기와 말하기 단원은 5개였으나, 실제 듣고 말하는 활동을 주요 학습 내용으로 선정한 단원은 3개였으며, 이 단원들은 7학년의 학년별 내용을 학습 목표에 고루 반영한 편이었다. 그러나 단원의 학습 순서에 있어서 1학기에 배울 6단원 「상황에 맞게 말하기」가 2학기 3단원에 속한 「판단하며 듣기」에 후행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생들이 내용은 판단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학습 된 후에 개별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는 것이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을 학습해야 한다는 학습 방법의 절차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다.

셋째, 개별 단원의 분석을 통해 보았을 때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통해 듣기·말하기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점이 보였는데, 단순히 화제를 정리하는 학습활동이 많아서 학생들의 비판력을 길러 주는 학습활동이 비교적 적었다는 것과,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설정이 미흡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2. 8학년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단원과의 상관성

8학년 「생활국어」 교과서는 1학기와 2학기로 나뉘어져 있는데, 1학기에는 3개의 단원이, 2학기에는 2개의 화법 단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먼저 이들 단원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법 영역 중 8학년에 해당하는 학년별 내용을 제시하고, 이러한 학년별 내용이 어떻게 개별 단원에 적용되는지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적 단원의 분석을 통해 학습활동이 바람직하게 설정되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8학년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8학년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8학년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7학년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위계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여 학년별 내용의 세부 사항을 [기본]과 [심화]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만 학습의 폭과 깊이를 심화하여 7학년에서 배운 [기본] 활동을 발전시켜 구체적 내용을 명시했으며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8학년 듣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³¹⁾

[8-(1)] 듣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기본】 말을 잘못 들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말해보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토의한다.

【심화】 듣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알게 해 주는 예를 찾는다.

[8-(2)] 내용과 내용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지에 유의하여 듣는다.

【기본】 여러 가지 표지를 단서로 내용과 짜임을 파악하며 듣는다.

【심화】 여러 가지 표지의 종류와 기능을 정리한다.

[8-(3)] 내용을 종합하여 듣는다.

【기본】 같은 내용에 대한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말한다.

【심화】 내용을 종합하며 듣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본다.

[8-(4)] 들은 내용의 응집성을 판단한다.

【기본】 들은 말의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간의 관계가 긴밀한지 토의한다.

들은 말의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 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게 표지를 적절히 사용했는지 토의한다.

【심화】 들은 내용의 응집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31) 교육부(1999), pp. 58~62 참고

[8-(5)] 상대의 비판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비판과 비난을 구별해 보고, 상대의 비판을 이해한다.

【심화】 바람직한 토의나 토론 문화의 정착에 대해 토의한다.

< 8학년 말하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³²⁾

[8-(1)] 말하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기본】 말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말해보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토의한다.

【심화】 말하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알게 해 주는 예를 찾는다.

[8-(2)] 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해 말한다.

【기본】 어떤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 결과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심화】 효과적인 토론 방법과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안다.

[8-(3)] 응집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여 말한다.

【기본】 문장과 문장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여러 가지 표지를 사용하여 말한다.

【심화】 말의 응집성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안다.

[8-(4)]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말한다.

【기본】 효과적인 내용 전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보조 자료와 그 활용법에 대하여 알고, 이를 활용하며 조사, 관찰한 내용을 발표한다.

【심화】 시청각 보조 자료를 활용했을 때의 전달 효과에 대해 토의한다.

32) 교육부(1999), pp. 62~66 참고

[8-(5)]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의나 토론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기여한다.

【심화】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서 토의나 토론이 파행적으로 진행된 예를 찾아보고, 그 문제점과 폐해를 말한다.

위에서 제시한 학년별 내용을 살펴보면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8학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듣기·말하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은 7학년에서 제시했던 화법 내용에 관해 ‘본질, 원리, 태도’ 부분과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동시에 단계적으로 발달된 형태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7-듣-(3)의 ‘내용의 짜임을 파악하며 듣는다.’가 8-듣-(3)의 ‘내용을 종합하며 듣는다.’와 연결되고 있고, 7-말-(3)의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말한다.’가 8-말-(3)의 ‘응집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여 말한다.’와 관련을 맺는다. 그 외에도 학생들에게 듣기·말하기 활동이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알게 할 것, 토론을 하여 말하는 활동을 강조할 것, 시청각 자료의 활용이 중요함을 인지시킬 것 등을 주요 학습활동으로 선정하였다.

이제 이러한 학년별 내용이 교과서 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 8학년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단위와의 상관성

8학년 「생활국어」의 경우 1학기의 총 6단원 중에서 3단원이, 2학기의 5단원 중 3단원이 듣기·말하기 영역과 관계가 있다³³⁾. 그렇다면 8학년 학

33) 여기서는 화법 영역에 관한 부분만 언급할 것이므로, 1학기 5단원에서 ‘(2) 자기 소개서 쓰기’와 2학기 1단원에 포함된 ‘(2)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쓰기’ 단원은 그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습하게 될 듣기·말하기 영역이 제 7 차 학년별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표-7> 8학년 교과서 학습 목표와 교육과정 내용간의 상관성

학 기	교과서		교육과정	
	대단원	소단원	학습 목표	교육과정 내용
1	1. 즐거운 언어 생활	(1) 경험한 일 말하기 (2) 책 읽고 이야기하기	· 경험한 일의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말할 수 있다. · 책을 읽고 화제를 정하여 대화할 수 있다.	8-듣-(1) 8-말-(1)
	2.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	(1) 토론한 내용으로 말하기 (2) 토론한 내용으로 글쓰기	·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할 수 있다. ·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쓸 수 있다.	8-말-(2) 8-말-(5)
	5. 목적에 맞는 말과 글	(1) 조언하기	· 듣기·말하기·쓰기가 문 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 듣는 이의 입장을 고려하 면서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8-듣-(1) 8-말-(1)
2	1.보조 자료 활용하기	(1)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말하기	·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말 할 수 있다.	8-말-(4)
	3. 재구성 하여 말하기	(1) 요약하여 말하기 (2) 들은 내용 전달하기	· 내용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 들은 내용을 재구성하여 전달할 수 있다.	8-듣-(3) 8-듣-(4) 8-말-(3)
	5. 발화의 기능과 표현	(1) 발화의 여러 가지 기능 (2)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기	· 발화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	8-듣-(1) 8-말-(1) 8-말-(5)

8학년 「생활국어」의 경우 비교적 많은 단원이 듣기·말하기 단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별 내용을 교과서에 고루 반영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인다. 또한, 듣기의 교육과정 내용은, 주로 2학기 학습 내용에 많이 포함된 반면, 말하기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은 1·2학기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학기의 1단원 「즐거운 언어 생활」과 2단원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 2학기의 3단원 「재구성하여 말하기」, 5단원 「발화의 기능과 표현」을 중심으로 각 단원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살펴 본 교육과정의 내용이 개별 단원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³⁴⁾.

(1) 1학기 1단원 「즐거운 언어 생활」의 내용 분석

이 단원은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 생활 속에서 경험한 일을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말하게 하고, 책을 읽고 화제를 정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따라서, 소단원 (1)은 경험한 일 말하기와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자신의 느낌을 발표하는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느낌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단원 (2)의 경우, 토의를 통해 읽을 책을 선정하고 선정된 책을 읽은 다음 화제를 정하여 이야기해 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나와

34) 1학기의 5단원 「목적에 맞는 말과 글」은 쓰기·말하기 통합 단원이지만, 말하기에 해당하는 것은 소단원(1)의 「조언하기」이다. 하지만 이 소단원만으로는 화법 지도의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그 논의의 범위가 좁아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2학기 1단원 「보조 자료 활용하기」는 말하기나 글쓰기를 위해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중심이었으므로, 화법 수업만을 위한 단원이라고 보기 힘들기에 이를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이러한 토의 학습은 자신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학습활동이 될 것이다. 그 외에 보충·심화에서는 책을 영화로 만든 작품을 찾아보기,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독서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등의 학습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요약할 수 있다.

<표-8> 「즐거운 언어 생활」 단원의 학습 내용

구 분		교수·학습 내용
(1) 경험한 일 말하기	활동 1	·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듣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 · 다른 사람의 경험담을 통해 얻는 것들에 대해 알기
	활동 2	· 경험담을 읽고 인상적인 장면 말하기 · 경험담을 읽고 상황이 잘 드러났는지 판단하기
	활동 3	· 경험담을 듣고 중심 내용과 느낀 점 말하기
	활동 4	· 일상 생활 속에서 기억에 남는 일 떠올리기 · 듣는 이를 고려하여 내용 조직하기 · 상대방의 경험을 듣고 자신의 상황이나 생각과 비교하기
(2) 책 읽고 이야기 하기	활동 1	· ‘서유기’를 읽고 이야기할 화제에 대해 생각하기
	활동 2	· 좋은 책의 기준에 대해 말하기 · 친구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하기
	활동 3	· ‘운수 좋은 날’을 읽고 주인공의 감정 변화 파악하기 · 활동 2에서 추천한 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읽고 주인공의 감정 파악하기
	활동 4	· 추천한 책에서 대화할 화제 찾기 · 혼자 책을 읽을 때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눌 때의 차이점 알기

구 분		교수 · 학습 내용
보충 · 심화	활동 1	·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 정리하기 ·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험한 일 말하기
	활동 2	· 책을 영화로 만든 작품 찾아서 차이점 말하기
	활동 3	· 다른 사람과 경험담을 읽고 중심 사건 찾기 · 경험담의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활동 4	· 독서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앞서 제시한 표를 보면 소단원 (1)의 경우는 주로 경험담을 듣고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을 위주로 교수 · 학습이 이루어진다. 특히 여기서는 경험담을 단순히 요약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겪은 일의 상황이 잘 드러나는 말하기 활동을 부가해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인과 협동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입장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소단원 (2)의 경우는 책을 읽고 화제를 정하여 이야기를 하는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들이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공통된 주제를 화제로 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학습활동이다. 다만 인물의 감정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활동³⁵⁾에서 작품 선정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보인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제시된 ‘운수 좋은 날’의 경우, 주인공 김철지의 감정은 작품 시작에서 끝까지 줄곧 하향선을 그으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주인공의 감정 변화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인공의 감정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작품보다는, 주인공의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 미묘한 감정 변화를 잡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작품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35) 교육인적자원부((2002가), 『중학교 생활 국어 2-1』, p.22 참고

그 외에 보충·심화 활동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화제가 선정되었으나, 마지막 활동인 ‘독서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하기’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1학기 2단원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의 내용 분석

이 대단원은 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활동과 설득적인 글을 쓰는 활동을 해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설정되었다. 이 대단원은 전학년에서 7-말-(5) ‘말하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와 관련이 있으며, 학년별 내용에서는 8-말-(2) ‘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해 말한다.’와 8-말-(5)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와 연관이 있다³⁶⁾.

특히 본고에서는 소단원 (1)의 「토론한 내용으로 말하기」의 학습활동과 토론 자료 분석을 위주로 단원 설정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겠다³⁷⁾. 소단원 (1)의 경우 고학년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토론 활동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토론에 필요한 여러 요소에 관한 학습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주요 활동들을 요약한 다음의 표를 통해 이러한 사항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36) 본고 p.47 참고

37) 소단원 (2)의 「토론한 내용으로 글쓰기」는 ‘쓰기’의 영역에 더 적합하므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다만 각 활동 영역에 나온 토론 자료는 다소 그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보이므로, 본문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표-9>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 단원의 학습 내용

구 분		교수 · 학습 내용
(1)토론한 내용으로 말하기	바탕 학습	· 토론과 토의 구별하기 · 토론이 갖추어야 할 조건 알기 · 내용을 마련하는 방법으로서 토론의 중요성 알기
	활동 1	· 토론이 될 만한 주제 찾기
	활동 2	· ‘무인 카메라 설치’에 대해 토론한 후 토론 내용 말하기
	활동 3	·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해 토론한 후 토론 내용 정리하여 발표하기
(2)토론한 내용으로 글쓰기	바탕 학습	· 설득적인 글쓰기에서의 토론의 중요성 알기 ·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 알기
	활동 1	· 토론과 관련된 경험 말하기
	활동 2	· 토론한 내용을 읽고 종합하여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활동 3	· 토론한 뒤 생각이 바뀌었거나 새롭게 알게 된 점 정리하기
보충 · 심화	활동 4	· <활동 3>에서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득적인 글쓰기
	활동 1	· ‘진정한 불우이웃 돕기’를 주제로 토론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말하기
	활동 2	·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 여부’를 주제로 토론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글쓰기

여기서 소단원(1)의 학습활동을 분석해 보면 ‘일정한 주제를 제시하고 토론을 하도록 한 후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말하기’의 형식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무인 카메라 설치’에 대해 토론한 후 토론내용 말하기, ‘진정한 불우 이웃 돕기’를 주제로 토론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말하기,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해 토론한 후 토론 내용 정리하여 발표하기 외 많은 활동들이 위와 같은 고정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학년별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심화】 활동 중에서 ‘효과적인 토론 방법과 토론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안다.’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토론 방법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했다. 여기서 교사용 지도서에는 토론 자체를 학습의 요소가 아닌 다른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취급하도록 지도하도록 설명하고 있다³⁸⁾. 즉 토론하기를 연관짓기, 질문하기 등과 같은 내용을 마련하는 방법의 일부로만 활용하되 토론하기 자체를 학습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이 있는데, 이는 국어과에서 지향하는 통합적인 교육에도 위배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학년별 교육 내용과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

그 밖에 보충·심화 활동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나 실생활과 비교적 연관이 없는 주제가 토론의 화제로 채택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활동 2’의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 여부’를 주제로 토론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글쓰기를 하는 활동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토론의 주장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주제는 찬반으로 나누어서 토론 활동을 하기에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 수준의 학생이 다루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힘든 주제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3) 2학기 3단원 「재구성하여 말하기」의 내용 분석

일상생활에서 읽거나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전달과정에서 들은 내용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며,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읽거나 들은 내용을 말하는 목적과 듣는 이에 맞게 재구성하여 말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이 단원과

38) 교육인적자원부(2002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2-1』, p. 318 참고

관련 있는 전학년 내용은 '7-듣-(2), 7-듣-(3), 7-듣-(4), 7-듣-(5), 7-말-(3)' 등이며,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별 내용으로는 '8-듣-(3), 8-듣-(4), 8-말-(3)' 등과 연관이 있다³⁹⁾.

먼저 소단원 (1)에서는 여러 가지 요약하기 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요약의 필요성 알기, 삭제를 통해 요약하기, 문단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요약하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소단원 (2)에서는 들은 내용을 종합하여 전달하는 활동 위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토의 학습을 통한 말하기 활동이 많다. 다음으로 보충·심화 과정에서는 뉴스 듣고 내용 요약하여 말하기, 안내문 만들기 등의 학습활동이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0> 「재구성하여 말하기」 단원의 학습 내용

구 분		교수·학습 내용
(1) 요약 하여 말하기	바탕학습	· 요약하여 말하기
	활동 1	· 요약하기의 필요성 알기
	활동 2	· 삭제하기 방법으로 요약하기
	활동 3	· 문단 중심으로 내용 요약하기
	활동 4	· 글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기
(2) 들은 내용 전달하 기	바탕학습	· 들은 내용 전달하기
	활동 1	· 듣는 태도의 중요성 알기
	활동 2	· 들은 내용 전달하기
	활동 3	· 사회자의 입장에서 토의 내용을 종합하여 말하기
	활동 4	· 토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39) 본고 pp.29~30, pp.44~45, p.47 참고

구 분		교수 · 학습 내용
보충 · 심화	활동 1	· 글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기
	활동 2	· 뉴스 내용을 종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활동 3	· 글의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문 만들기
	활동 4	· 두 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말하기

먼저 소단원 (1)에서는 ‘삭제하기’의 방법을 통해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과 문단을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활동 1’의 경우 요약하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습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활동만 있지 요약하기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학습활동이 없었다. 즉 학생들이 부딪히고 요약하는 방법만 익히는 활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그런 활동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인식하는 교수 · 학습이 선행되어야 학습 동기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소단원 (2)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재구성하여 전달하기가 주된 학습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활동 3’의 ‘사회자의 입장에서 토의 내용을 종합하여 말하기’에서는 단순히 토의한 내용을 요약 · 정리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에도 토의 중 사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 따라서, 토의를 할 때에 사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게 하고, 사회자가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선수학습으로 학습한다면, 다음 차시에 다른 화제를 가지고 토의 · 토론을 할 때에 사회자의 좀 더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보충 · 심화 학습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비교적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는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비교적 잘 구성되었다.

(4) 2학기 5단원 「발화의 기능과 표현」의 내용 분석

이 단원은 학생이 발화의 기능을 알고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함으로써, 목적 지향적인 언어사용을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설정되었다. 따라서, 이 단원은 학생들에게 발화의 개념과 여러 가지 기능을 알게 하고,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데 그 교수·학습의 목적이 있다.

전학년에서 배운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7-듣-(2), 7-말-(1), 7-말-(4)’의 학습을 연장한 것⁴⁰⁾이며, 학년별 내용으로는 ‘8-듣-(1)’, ‘8-말-(1)’, ‘8-말-(5)’와 연관이 있다⁴¹⁾. 특히 소단원 (1)은 발화의 개념과 기능을 알아보는 ‘국어지식’ 영역에 해당하고, 소단원 (2)가 실제 발화 상황을 학습하므로, 여기서는 특히 소단원 (2)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활동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다. 먼저 소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학습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1> 「발화의 기능과 표현」 단원의 학습 내용

구 분		교수·학습 내용
(1) 발화의 여러 가지 기능	바탕학습	· 발화의 여러 가지 기능
	활동 1	· 발화의 개념 알아보기
	활동 2	· 발화의 기능 알아보기
	활동 3	· 일상적인 표현에 쓰인 발화의 기능 이해하기

40) 본고 pp.29~30 참고

41) 본고 pp.44~46, p.47 참고

구 분		교수 · 학습 내용
(2) 발화의 기능을 고려 하여 말하기	바탕학습	·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기
	활동 1	· 다양한 상황에 어울리게 말해 보기
	활동 2	· 상황에 맞게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하기
	활동 3	· 듣는 이의 입장을 고려하여 말하기
	활동 4	·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해야 하는 이유 생각해 보기
보충 · 심화	자기점검	· 학습 내용 점검하기
	활동 1	· 대화를 구성하는 발화의 기능 파악하기
	활동 2	· 상황에 맞게 다양한 표현으로 말해 보기
	활동 3	· 발화의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하여 말해 보기
	활동 4	· 발화의 기능에 어울리게 동작이나 어조 · 억양 조절하기

소단원 (2)는 말하는 이가 의사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발화의 기능을 고려하여 말해야 함을 알고, 실제 발화 장면에서 듣는 이의 입장을 생각하며 상황에 맞게 의사를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이 소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 대화를 하는 학습활동이 많은데, 이러한 활동은 실제 생활에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듣기 · 말하기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주어진 여러 상황에서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차원을 넘어 이미 이루어진 발화 내용을 평가하고 학생 상호간의 점검을 해 주는 부분이 더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은 이러한 자기 조정 또는 상호 조정의 과정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대화 내용도 많이 풍부해지고, 비문법적인 발화 요인도 많이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8학년에 해당하는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과 각 단원의 학습 활동을 분석해 봄으로써, 교과과정이 실제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그 교수·학습 방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8학년의 경우, 7학년에서 배운 학년별 내용을 심화시켜 학습하되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별 내용도 비교적 고루 잘 분포되어 교과서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토의·토론 수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 학습활동 이전에 체계적인 선수 학습이 이루어질 것, 학생 상호 평가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각자의 언어 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안목을 길러 줄 것 등을 제안하겠다.

3. 9학년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단원과의 상관성

9학년의 「생활국어」 교과서에서 듣기·말하기와 관련된 부분은 1학기 총 6개 단원 중에서 3단원이, 2학기 총 5개 단원에서 2단원이 해당된다. 특히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화법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9학년의 학년별 내용은 이미 살펴보았던 7학년과 8학년의 학년별 내용을 폭과 깊이를 더해 가며 제시하였다. 즉 7학년과 8학년에서 주로 다루어진 말하고 듣는 활동을 단순히 이해하는 과정에서 벗어나서, 9학년에서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황적 요소를 염두에 두고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적당히 구사하도록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9학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 중 9학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해 보겠다. 다음으로 각 교과서 단원이 학년별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비교해 본 후에 개별 단원에 알맞은 효율적인 화법 교육의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가. 9학년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

9학년의 경우, 앞서 언급한 7학년과 8학년의 학년별 내용의 기본적인 틀은 지키면서 학습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 성격은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 고루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태도’의 경우 단순히 학습의 동기를 유발하는 차원에서 수준을 높여서 그것에 흥미를 가지고 이미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습관화하는 단계로 발전시켜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위계화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 중 9학년에 제시하고 있는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을 듣기와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9학년 듣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⁴²⁾

[9-(1)] 듣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안다.

【기본】 시장이나 상점에서 흥정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듣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설명한다.

【심화】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듣기 전략이 달라지는 예를 알아본다.

[9-(2)]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기본】 중심 내용을 메모하면서 듣고, 이를 종합하여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

【심화】 요약하며 듣기의 효과에 대해 토의한다.

[9-(3)] 들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한다.

42) 교육부(1999), pp.92~95 참고

【기본】 하나의 주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말을 비교하며 듣고,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해 토의한다.

【심화】 들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아본다.

[9-(4)] 말하는 이에 적절히 반응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적절한 표정이나 몸짓으로 반응하면서 듣는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서 듣는다.

【심화】 의문 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듣는 사람의 여러 가지 반응 양상을 조사한다.

< 9학년 말하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⁴³⁾

[9-(1)] 말하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안다.

【기본】 방송에서의 말하기와 일상 대화를 비교하고, 말하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설명한다.

연설에서 연사와 청중의 행동을 살펴보고, 연설이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조정의 과정임을 설명한다.

【심화】 여러 연사들의 연설 장면을 관찰하고, 연사들이 청중들의 배경이나 요구 등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알아본다.

[9-(2)] 화제의 가치를 고려하여 논의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기본】 정치적 현안이나 사회적 쟁점 중에서 함께 논의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토론한다.

【심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서 함께 논의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토론한다.

[9-(3)]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의 전개 방식을 조절하여 말한다.

43) 교육부(1999), pp.96~100 참고

【기본】 말하기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의 전개 방식을 적절히 조절하여 말한다.

【심화】 유능한 연사들은 상황에 따라 내용의 전개 방식을 어떻게 조절하여 말하는지 조사한다.

[9-(4)] 상황에 따라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말한다.

【기본】 반언어적 표현의 기능과 효과를 알아보고, 상황에 따라 반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말한다.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과 효과를 알아보고, 상황에 따라 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하여 말한다.

【심화】 반언어적 표현이 효과가 없거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우를 알아보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토의한다.

비언어적 표현이 효과가 없거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경우를 알아보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토의한다.

[9-(5)]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청중들의 반응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연설한다.

【심화】 유능한 연사들은 청중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본다.

위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 9학년 학년별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언급한 7·8학년의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위계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7학년에서 ‘듣기와 말하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기’라는 단순한 개념을 이해하는 활동이 중요시되었다면, 이것이 8학년에서는 ‘듣기와 말하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알기’로, 다시 9학년에서는 ‘듣기

말하기가 사회·문화적 활동임을 알기'로 심화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태도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7학년에서는 화법 교육에 있어서 단순히 흥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을 강조한 반면에, 고학년이 될수록 그것을 습관화하고 가치화하는 것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 외에도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는 말하기를 학습한 후에, 전달 방식을 고려하여 내용의 전개 방식을 조절하여 말하기를 학습하도록 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나. 9학년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단원과의 상관성

이제 앞에서 살펴 본 9학년의 학년별 내용이 실제 교과서 단원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 해당하는 「생활국어」의 단원을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과 연관시켜 비교·분석해 보겠다. 여기서 9학년 1학기 6단원의 「남북한의 언어」는 '말하기/국어지식'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교과 내용은 '국어지식'에 치우쳐 있으므로 구체적인 단원의 내용 분석에서는 그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표-12> 9학년 교과서 학습 목표와 교육과정 내용간의 상관성

학 기	교과서		교육과정	
	대단원	소단원	학습 목표	교육과정 내용
1	1. 협약하기	(1) 협의란 무엇인가 (2) 협의하여 문제 해결하기	· 협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의사 소통 과정임을 안다. · 협의하여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9-듣-(1) 9-말-(1) 9-말-(2) 9-말-(3)
	3. 듣는 힘 기르기	(1)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 (2) 효과적으로 듣기	· 듣기에 활용할 수 있는 여 러 가지 방법을 안다. ·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다.	9-듣-(2) 9-듣-(3) 9-듣-(4)
	6. 남북한의 언어	(1) 남북한 언어의 차이 (2)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	· 남북한 언어에 차이가 있음 을 이해한다. ·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 하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다.	9-말 (2)
2	1. 좋은 화제로 말하기	(1) 좋은 화제의 필요성 (2) 좋은 화제로 말하기	· 평소 우리의 대화를 살펴 보고 좋은 화제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 좋은 화제로 즐겁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9-말-(2) 9-말-(3) 9-말-(5) 9-듣-(4)
	4. 적극적 으로 말하고 듣기	(1) 언어, 반언어, 비언어적 의사소통 (2)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기	· 언어와 함께 사용되는 반언 어와 비언어적 소통방법의 효과를 안다. · 반언어와 비언어적 소통방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대화할 수 있다.	9-말-(4) 9-듣-(4) 9-말-(5)

위 표를 보면 9학년의 경우 이미 언급한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이 단위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학기에는 듣기와 말하기의 본질과 원리를 중심으로, 2학기에는 더욱 심화된 원리와 태도 중심으로 그 학습의 계열성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듣기의 경우 7학년의 ‘통일성을 평가하며 듣기’가 8학년에서는 ‘웅집성을 판단하는 듣기’로, 이것이 다시 9학년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듣기’로 계열화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말하기의 경우에도 7학년에서 ‘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가 8학년에서는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말하기’로, 다시 9학년에서는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말하기’로 그 태도의 방향이 개인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말하기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메시지의 전달뿐만 아니라, 발화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나 특히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요소임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러한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이 실제 단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9학년에서 제시한 화법 영역의 4개의 단위들을 중심으로 그 상관성을 살펴보겠다. 특히 1학기 1단원의 「협의하기」와 2학기 4단원의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기」는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일상 생활에서 유용하게 실천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그 교수·학습 과정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1학기 1단원 「협의하기」의 내용 분석

이 대단원은 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의사 소통의 방식들 중에서 ‘협의하기’를 다루었다. 학생들은 협의가 필요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실제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구성원 사이의 사회·문화적 관계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 소통에 참여하는 태도를 배우도록 학습활동이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 단원은 7-말-(5) ‘말하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8-듣-(5) ‘상대의 비판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와 8-말-(5)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의 학습 내용과 연관이 깊다. 또한, 9학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내용으로는 9-듣-(1) ‘듣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안다.’, 9-말-(1) ‘말하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안다.’, 9-말-(2) ‘화제의 가치를 고려하여 논의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9-말-(3)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의 전개방식을 조절하여 말한다.’와 관련이 있다⁴⁴⁾.

이제 이러한 학년별 내용들이 어떻게 소단원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다음에 제시하는 표를 살펴보도록 하자.

44) 본고 p.64 참고

<표-13> 「협의하기」 단원의 학습 내용

구 분		교수 · 학습 내용
(1) 협의란 무엇인가	활동 1	· 만화를 보고 영철이네 가족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기
	활동 2	· 체육복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나의 개선안 제시하기
	활동 3	· 우리 주변에서 협의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찾아 그 상황과 내용을 분석하고, 해결책도 마련해 보기
(2)협의 하여 문제해 결하기	활동 1	· 글을 읽고, 방을 같이 쓰는 자매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고민을 협의하여 해결해 보기
	활동 2	·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올라온 글 두 편을 읽고, 각각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
보충 · 심화	자기점검	· 자신의 학습 정도 점검하기
	활동 1	· 협의할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글로 적어 상대방에게 보내기
	활동 2	· 환경 문제를 자료로 하여 협의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기

먼저 소단원 (1)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협의하기’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나의 개선안을 내놓는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나의 의견을 교환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협의하기’의 필요성과 의사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바람직한 태도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활동 3’에서 제시한 ‘체육복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습활동이 학교의 입장에 반대하는 편에 치중해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찬반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한쪽 의견만을 중시하는 학습보다는 학교측의 입장에 찬성하는 학생의 의견도 나름대로 논리 있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수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소단원 (2)는 학생들이 실제로 협의를 연습할 수 있는 상황으로 구성하였는데, '활동 1'이 일차적이고 규모가 작은 가정이라는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면, '활동 2'에서는 공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일어난 갈등 상황을 제시하여 협의 과정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보충·심화에서는 상대방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과 협의하기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해 보는 활동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주어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보는 학습활동만 있지 실제 협의하기의 어려움을 글로 적어보거나 말로 해 보는 활동이 없어서 학습활동과 교수·학습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다.

(2) 1학기 3단원 「듣는 힘 기르기」의 내용 분석

이 단원은 전학년에서 배운 이해 위주의 듣기 학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략 습득을 위한 듣기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단원은 듣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 중 전학년에서 다룬 8-듣-(2)의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와 8-듣-(3) '들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한다.'와 연장선에 있는 학습활동이지만, 특히 이 단원에서는 들은 내용의 단순한 요약보다는 구조적으로 요약하는 전략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예전의 학습활동과 차별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 단원과 관련 있는 학년별 내용도 9학년

에서 제시하고 있는 듣기 영역과 관련이 깊으며, 구체적으로는 9-듣-(2)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9-듣-(3) ‘들은 내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한다.’, 9-듣-(4) ‘말하는 이에게 적절히 반응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가 이에 해당한다⁴⁵⁾.

이에 소단원 (1)은 듣기 전략을 종류별로 소개하고, 소단원 (2)에서는 소단원 (1)에서 배운 듣기 전략을 연습해 보는 활동을 위주로 학습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보충·심화에서는 메모하며 듣는 방법과 적극적인 듣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4> 「듣는 힘 기르기」 단원의 학습 내용

구 분		교수·학습 내용
(1) 효과 적으 로 듣는 방법	활동 1	· 수업을 듣기 전, 듣는 중, 들은 후의 수업과 관련하여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점검해 보기
	활동 2	· 미리 준비하고 들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생각해 보기
	활동 3	· 메모를 하면서 들을 때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활동 4	· 들은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2) 효과 적으 로 듣기	활동 1	· [듣기 전 활동] 토론을 듣기 전에, ‘팬 클럽 활동’에 대한 경험 이야기해 보기 · [듣는 중 활동] ‘팬 클럽 활동’에 대한 토론을 들으며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메모하기 · [들은 후 활동] 메모한 내용을 분석한 다음 구조적으로 정리하기

45) 본고 p.64 참고

구 분		교수·학습 내용
보충 · 심화	자기점검	· 자신의 학습 정도 점검하기
	활동 1	· 들으면서 메모한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기
	활동 2	· 적극적인 듣기 태도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 보기

소단원 (1)에서는 ‘듣기 전에 미리 준비하기’, ‘메모하며 듣기’, ‘들은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기’의 세 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이 세 가지 전략은 각각 ‘듣기 전 활동’, ‘듣는 중 활동’, ‘들은 후 활동’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리 준비하고 듣는 것과 그렇지 않고 듣는 것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수업 방법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듣는 것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또한, 들은 내용을 구조화하여 도표로 나타내는 활동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제를 택해서 듣기 전략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되었다.

소단원 (2)의 경우는 ‘팬 클럽 활동’에 관한 토론 내용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들은 내용을 구조화하는 활동을 위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듣기 전 활동’에서 맨 처음 학생들에게 팬 클럽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 본 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팬 클럽에 가입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위한 활동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팬 클럽에 가입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만약 팬 클럽에 가입한다면 누구의 팬 클럽에 가입하고 싶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든가 ‘팬 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등의 질문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보충·심화 활동에는 들은 내용을 메모하고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이 있는데, 특히 첫 번째 문제인 ‘부드러운 처벌의 효과’에서는 듣기 활동을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제목에 대해 상기시키고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될지 학생 스스로 짐작하게 하는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2학기 1단원 「좋은 화제로 말하기」의 내용 분석

이 단원은 학생들이 여러 대화 상황 속에서 유익하고 알찬 화제를 찾아 이야기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구안되었으며,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으로는 9-말-(2)의 ‘화제의 가치를 고려하여 논의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9-말-(3)의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내용의 전개 방식을 조절하여 말한다.’, 9-말-(5)의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9-들-(4)의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관련이 있다⁴⁶⁾.

그리고 전학년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7학년에서 배운 7-말-(3)의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말한다.’와 7-말-(2)의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와 연관이 있으며, 8학년에서 배운 8-말-(2) ‘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해 말한다.’와 8-말-(5)의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와 연결이 된다. 이제 이러한 학년별 목표와 단원의 내용을 서로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구체적 단원의 설정이 적절한지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46) 본고 p.64 참고

<표-15> 「좋은 화제로 말하기」 단원의 학습 내용

구 분		교수 · 학습 내용
(1) 좋은 화제의 필요성	활동 1	· 화제가 없어 곤란했던 경험을 한 학생의 일화를 읽고, 화제의 빈곤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활동 2	· 자신의 말하기 상황을 돌아보고, 내용을 분석해 보기
	활동 3	· 텔레비전의 대화 내용을 화제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기
(2) 좋은 화제로 말하기	활동 1	· 좋은 화제를 찾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기
	활동 2	· 화제를 준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경우와 준비하여 이야기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기
	활동 3	· 좋은 화제를 선정하여 이야기해 보기
보충 · 심화	활동 1	· 소설을 자료로 대화 장면 속의 화제를 분석해 보기
	활동 2	· ‘광고’라는 화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기

소단원 (1)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는 화제가 무엇인지, 또 대화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일은 없었는지를 말해 보는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학습활동들도 대부분 있었던 일을 재연해 보거나 그것을 평가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소단원 (1)의 경우 학습 목표가 ‘좋은 화제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단순히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유익하다.’ 혹은 ‘유익하지 않다.’로 평가하는 것으로 학습활동을 마무리하는데, 그런 활동 자체만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를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학년별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제를 풍부하게 준비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서 좋은 화제와 좋지 않은 화제를 구별하고, 선별된 화제를 실제 발화 상황에서 시연하는 활

동을 체계적으로 교사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단원 (2)는 소단원 (1)에서 ‘배운 좋은 화제를 선정해야 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 좋은 화제를 찾아 말해 보는 활동을 한다. 특히 이 소단원은 모둠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많은데, 이러한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되 너무 산만한 수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보충·심화에서는 ‘소설의 한 부분을 보고 화제 정리하기’와 ‘광고를 보고 여러 가지 화제를 찾아 이야기하기’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특히 후자의 활동은 교과서에서 제시한 광고 이외에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서 학생들이 광고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해 보는 활동으로 확대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2학기 4단원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기」의 내용 분석

성공적인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 상황과 내용,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표정, 몸짓, 목소리 등을 말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반언어적·비언어적 요소를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이 단원이 설정되었다.

이 대단원이 관련 있는 학년별 내용으로는 9-말-(4) ‘상황에 따라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조절하며 말한다.’, 9-듣-(4) ‘말하는 이에게 적절히 반응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9-말-(5)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말하는 태도를 지닌다.’ 등을 들 수 있다⁴⁷⁾. 또 전학년에서 학습한 7-말-(5)의 ‘말하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와 8-말-(5) ‘말하는 이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말하려는 태도를 지닌다.’와도 관련이 있는

47) 본고 p.64 참고

단원이다.

이제 각 소단원별로 제시하고 있는 활동을 통해 이들 학년별 내용이 얼마나 실제 교수·학습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표-16>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기」 단원의 학습 내용

구 분		교수·학습 내용
(1) 언어, 반·비언어적 의사소통	활동 1	· 반언어와 비언어적 소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글을 읽고, 그 효과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활동 2	· 말하는 사람에 맞추어 반언어와 비언어적 소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의 효과를 살펴보기
	활동 3	· 사람들이 반언어와 비언어적 소통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대화하는지 조사해 보기
(2)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기	활동 1	· ‘마지막 잎새’의 연출 대본을 읽고, 반언어와 비언어적 소통 방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연기해 보기
	활동 2	· 반언어와 비언어적 소통 방법을 활용하면서 실제 대화해 보기
보충·심화	자기점검	· 자신의 학습 정도 점검하기
	활동 1	· 연기 연습 절차를 설명한 글을 읽고, 말을 주고받을 때의 언어, 비언어적 소통 방법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
	활동 2	· 인물의 행동과 표정만으로 표현된 만화를 보고, 그 상황을 짐작하여 보기

여기서 소단원 (1)은 반언어와 비언어적 요소를 삼입해서 주어진 지문을 읽어보는 활동과 판소리 들어보기, 침묵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기 등의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소단원 (1)의 경우는 반언어와 비언어의 효과

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주요 학습 목표인데, 단순히 지문을 읽어보거나 판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학습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활동 이후에 학생들이 반언어와 비언어의 효과와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을 말해보거나 적어보는 활동이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소단원 (2)는 연극의 대본을 읽는 활동과 주어진 상황에서 반언어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활용하면서 이야기해 보는 활동이 있다. 특히 ‘활동 2’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정해 놓고, 그 상황에 맞는 반언어적·비언어적 의사 소통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친근하게 반언어와 비언어를 구사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충·심화에서는 연기 연습 절차를 정리해 놓은 글과 만화를 보고 반언어와 비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이 있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 등장 인물간에 대화가 전혀 없어도 이야기가 전개되므로,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학습 소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화법 영역에 대한 학년별 내용을 9학년 화법 단원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7학년 수준의 화법 영역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거나, 들은 내용의 통일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활동 중심이라면 9학년의 내용은 이를 심화·발전시켜 상황에 맞게 화제를 정하여 말하고,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의 전달효과를 파악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교과서에 비교적 고루 반영되어 실제 학습활동을 통해 이러한 학습 목표들이 도달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단원들이 편찬되었다. 다만 개별 학습활동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⁴⁸⁾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48) 개별 학습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토론 활동 시에 찬반 의견이 비슷하

이상 우리는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과 그 교수·학습 방안들을 알아보기 위해 7학년부터 9학년까지 듣기·말하기 영역에 해당하는 「생활국어」의 교과서 내용을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년별 내용과 비교하여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바람직한 화법 교육이 나아가기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 방안을 학년별로 마련해 보고,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총괄적으로 정리·평가해서 화법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게 나눌 수 있는 화제를 선정하지 못한 것, 반언어와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관한 학습이 없는 것,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말화 상황을 설정하지 않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IV. 제 7 차 교육과정 화법 영역의 교수·학습 방안과 평가

지금까지 우리는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 중 화법 영역의 교육과정과 학년별 내용을 제시하고 그것이 실제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학교 「생활국어」의 듣기·말하기 단원을 중심으로 학습활동과 교수·학습 방법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첫째, 교과서 학습활동과 지도 교수 방법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한 화법 교수·학습 방법들을 학년별로 구체적으로 제안해 보고 둘째, 제 7 차 화법 영역의 교과서 분석을 종합·평가하여 봄으로써, 교육과정과 실제 교과서와의 상관 관계를 거시적으로 파악해 보고 화법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1. 바람직한 화법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이제 앞 장에서 분석한 학년별 교육과정 목표와 교과서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화법 수업을 위한 몇 가지 교수·학습 방법들을 학년별로 제시해 보겠다. 특히 이 절에서 논의될 내용은 화법 영역의 개별 단원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실제 교

실 수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 논의될 내용은 화법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며, 이러한 세부적인 화법 교수·학습 방안을 학년별로 제안해 보고자 한다.

가. 7학년 화법 단원의 교수·학습 방안

7학년 화법 영역의 단원 분석을 통해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말하기와 듣기」 단원의 경우, 학생들에게 상호 평가 시에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선수학습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 단원의 경우, 소단원(2)에서 ‘활동 1’을 보면 친구의 말하기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항목 중 특히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말했다고 생각하는가?’를 평가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짜임새 있는 구성을 위해 필요한 내용 조직의 일반 원리-단계성, 통일성, 일관성, 간결성, 완결성-에 대한 선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도 이런 원리들을 이해한 후에 여기에 맞추어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상호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단계성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처음과 중간, 끝의 각 단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성 단계는 보통 3단 구성(처음-중간-끝, 서론-본론-결론), 4단 구성(기-승-전-결), 5단 구성(주의 환기-과제 제시-과제 해명-해명의 구체화-결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일성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화제(주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것으로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들이 통일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관성으로 이는 담화 내의 문장과 문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관성은 지시어나 접속어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유기적인 관계로 조직할 수 있으며 시간적 순서, 공간적 순서, 논리적 순서 등을 바탕으로 배열 순서를 정함으로써 말(글)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간결성은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짧고 간단하게 말(글)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간결성은 필요 없는 말이나 수식어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듣는 이에게 효과적인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완결성은 말(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상황에 맞게 말하기」 단원에서는 담화 구성 요소들의 학습이 고루 습득될 수 있도록 학습 방향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담화 구성 요소들은 목적, 말할 대상, 시간적·공간적 조건, 이야기의 흐름, 분위기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활동에서는 주로 담화 구성 요소 중에서 말할 대상과 분위기에만 치중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담화 구성 요소 중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⁴⁹⁾을 개별 학습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화법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판단하며 듣기」 단원에서는 단순히 들은 내용을 정리하거나, 들은 내용을 판단하며 듣는 것에서 벗어나, 학습자로 하여금 비판하며 듣는 방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화자의 말을 비판적으로 듣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9) 담화 구성 요소 중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는 ‘말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장소에서 언제 말을 하는가?’, ‘언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가?’, ‘격식을 갖추어 말을 해야 하는가?’, ‘내가 말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가장 중심이 되는 화제는 무엇인가?’ 등이 포함된다.

<비판적 듣기의 방법>

- 이야기하는 내용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듣는다.
-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합치된 내용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며 듣는다.
- 이야기의 내용이 진실인지 판단하며 듣는다.
- 사실, 추론, 가정, 의견 등을 구분하여 듣는다.
- 정보의 적합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다.
-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의견이나 설명에 대한 여부를 비교하며 듣는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듣는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적 듣기의 구체적 요소들이 학습활동에 반영되어 꾸준히 듣기 수업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7학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화법 단원의 부분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법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학습자의 발달 과정을 고려해서 쉬운 지문이나 내용을 먼저 학습하고 나중에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을 학습하는 교육방법이 적용될 것과 학생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이끌어 내는 귀납법의 학습방법이 확대될 것을 제안해 보겠다.

나. 8학년 화법 단원의 교수·학습 방안

8학년 화법 수업에서 보이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면 토론 선수 학습 부재, 토론 학습 주제 선정의 비합리성, 학생 상호 평가의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 단원에서 토론의 선수 학습 요소가 많이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토론에 대해 크게 3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토론과 토의의 차이, 토론이 갖추어야 할 조건, 토론한 내용으로 말할 때의 좋은 점’이 그것이다. 하지만 바람직한 토론 학습을 위해서는 토론의 필요성, 토론의 효과, 토론의 규칙, 토론의 절차, 사회자의 임무와 조건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항목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자기 주장을 말할 때 근거를 마련해서 주장하기 쉽다는 것, 설득적인 글을 쓸 때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 자기 주장에 대한 반론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 자기의 주장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토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전하려고 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한다는 것, 자기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 청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토론의 규칙은 시간의 제약이 있고, 발언 시간과 발언 순서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논제는 하나의 주장을 포함하는 긍정 명제로 해야 하고 논박의 시간은 쌍방이 똑같이 배분한다. 그 외에 토론의 절차는

크게 다섯 가지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토론의 주제 결정 → 사회자 및 판정인, 찬성, 반대 의견자 나누기 → 찬성과 반대의 의견(주장) 내세우기 → 정당한 이유 이야기하기(상대방의 주장에 질문) → 판정인의 의논’이 그것이다.

그리고 토론의 사회자는 어떤 주장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않으면서 자연스런 어조로 말하고, 남의 발언을 위축시키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지식이 풍부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외에 토론에서 사회자의 임무는 ‘토론의 장소와 참가자의 좌석을 지정하는 것, 토론의 내용을 알리고 토론이 본래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문제가 혼란해지거나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논점을 정리해서 참가자 전원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이 말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말을 알아듣도록 다시 말해 주는 것, 부적합한 때에 중요한 의견이 나오면 메모해 두었다가 다음에 문제로 삼는 것, 판정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종결하는 것’ 등이다.

둘째, 토의·토론 학습의 부족과 토론 주제의 비합리성을 들 수 있다. 7학년에서 9학년까지 듣기·말하기 단원 중 토의·토론에 관해 깊이 있게 다룬 것은 8학년 1학기의 2단원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 단 하나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이 단원조차 학생들이 토론하기에 적절한 주제는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토론의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없는 주제가 채택되거나, 찬·반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치우쳐서 동등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힘든 주제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는 토의·토론만큼 적절한 수업은 없을 것이다. 고학년이 될수록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중요시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토의·토론은 학생들이 반드시 익

혀야 할 중요한 학습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중학교 화법 수업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토의⁵⁰⁾·토론⁵¹⁾ 수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익히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견문을 넓히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한편,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 단원에 제시되어 있는 토론에 관련된 주제도 중학생이 다루기에 매우 어렵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들 수 없는 불합리한 주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활동 3’에서 다루었던 ‘남녀차별 문제’는 시대 변화상을 반영했을 때 ‘남녀차별을 계속 해야한다.’는 의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되므로, 찬반 의견자의 수가 거의 동등해야 하는 토론의 주제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 외에도 보충·심화 학습에 언급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 여부’에 관한 토론 주제는 학생들이 과학적인 근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기보다는, 경험이나 상상 등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논리적인 말하기에 해당하는 토론의 주제로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중학생 수준에 맞으면서 그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논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토론의 주제를 선정해서 교수·학습 시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몇 가지 주제를 제안해 본다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존대어를 사용해야 한다.’, ‘학생들의 교복착용을 폐지해야 한다.’,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학생들의 두발규제

50) 토의 수업을 위한 학습 방법으로는 ‘공동 과제 부여하기’가 대표적인데, 이는 말하기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인터뷰, 설문 조사, 관찰, 실험, 문헌 조사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의 외국어 간판 조사하기, 우리 반 학생들이 가장 즐겨 읽는 책 조사하기, 학교 환경을 위한 개선안 마련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1) 효과적인 토론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소집단(4~6명) 토론이 바람직하며, 토론의 필수 조건으로는 충분한 주의 집중, 적극적인 참여, 학생과 학생간의 또는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는 필요하다.', '인터넷 언어폭력은 규제해야 한다.', '연예인 모방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도난사건 방지를 위해 교실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등이 있다.

셋째, 「발화의 기능과 표현」 단원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춘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발화 활동을 강조하는데, 특히 이 단원에서의 평가 방법은 수행평가가 위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행평가 자체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이 얼마인가를 측정한다기보다는, 실제 학생들이 듣기·말하기 능력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그 평가의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원과 같이 '상황'이라는 가변적 요소가 전제되어 있는 화법 수업에서 수행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서술형 검사, 논술형 검사, 구술 시험, 찬·반 토론법, 실험·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연구 보고서⁵²⁾, 포트폴리오(portfolio) 등이 있는데 특히 이 단원의 평가를 위해서는 논술형 검사, 구술 시험, 관찰법 등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평가 방법들은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장점이거나 약점, 성실성 여부, 잠재 가능성 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교사에게는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8학년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외에도 학생들의 여러 능력을 포괄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선정할 것, 특정한 학습활동을 하기 전에 왜 그 학습이 필요한지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사가 먼저

52) 연구 보고서는 교과별 또는 범 교과 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 주제 중에서 학생의 능력이나 흥미에 적합한 주제로 선택하되,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 주제나 범위에 따라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단체로도 할 수 있다.

가르칠 것,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 자료들을 활용 할 것 등을 제안하겠다.

다. 9학년 화법 단원의 교수·학습 방안

9학년 「생활국어」에서 화법에 대해 다룬 단원은 모두 4개의 단원으로, 이들 단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들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의하기」의 단원에서는 협의가 문제해결 과정임을 알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지만, 말하기의 여러 종류 중에 왜 ‘협의하기’를 주요 학습활동으로 채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즉, 이 단원이 논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화법의 종류⁵³⁾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 특히 ‘협의하기’를 학습활동의 주요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 단순히 ‘협의하기’가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설정되었다고 언급하기에는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요소가 부족하며, 사적인 말하기가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는 하나 공적인 말하기 역시 언어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 두 가지 말하기의 조화로운 학습이 유도되도록 교

53)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법의 종류는 크게 3 가지이다. 첫째, 두 사람이 변대하여 이야기하는 ‘대화’로 이것은 다시 시사문제, 취미, 담소, 담화 등 ‘비공식적 대화’와 방송대담, 회견, 면담, 면접 등 ‘공식대화’로 나뉜다. 둘째, 여러 사람 앞에서 주로 혼자 이야기하는 강연, 연설, 구두 보고 등과 같은 대중적 말하기로 이를 ‘대중화법’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정보 전달적 화법, 설득적 화법, 오락적 화법, 식사(式辭) 화법 등이 포함된다. 셋째,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집단 화법’으로 토의나 토론이 여기에 속한다. 특히 ‘협의하기’의 경우는 이 분류에 따르면 ‘대화’ 중에서 ‘비공식적 대화’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학습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듣는 힘 기르기」 단원의 학습을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듣는 방법이나 실제도 중요하지만, 듣기 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거나 듣기 전략 등을 소개하는 활동이 부가되어야 한다. 무엇을 들을지 준비를 하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무언가를 듣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화자의 말을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비판적으로 듣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끌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듣기 활동은 크게 ‘듣기 전 활동’, ‘듣는 중 활동’, ‘들은 후 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 각각의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듣기 전 활동’에서는 배경지식을 구축하고, 자신이 듣기 활동을 하는 목적을 확인하며, 앞으로 들을 내용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듣는 중 활동’에서는 들은 정보를 확인하고, 들은 내용을 이해하며, 들은 내용을 비판·감상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들은 후 활동’에서는 들은 내용을 내면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들은 내용을 다른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것이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듣기 전략들을 듣기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인지시키고 난 후에, 실제 듣기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생들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여러 화제로 말해 보는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화제로 말하기」 단원의 경우에는 특히 모둠 활동이 많은데, 학생들이 위주가 되는 이러한 모둠 활동이 주가 되는 수업에는 학생들에게 모둠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주의 사항을 먼저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큰 제약 없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 지나치게 그 의견을 배척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이 모일 수 있도록 모둠원별로 각자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분담해 줌으로써, 모둠원 개개인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종합된 내용을 모둠별로 비교해보도록 하여, 각 모둠간 상호작용 활동을 촉진하고 발표 내용을 서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넷째, 「적극적으로 말하고 듣기」 단원에서는 특히 반언어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지니도록 유도하는 활동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동에 비해 반언어와 비언어의 종류, 효과, 기능, 필요성 등의 내용이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활동이 들어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러한 반언어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 왜 생기게 되었으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차례로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반언어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나, 태도의 변화 등 말이나 글로써 표현될 수 없지만 실제 의사소통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요한 표현과 이해의 수단이다. 따라서, 반언어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굳이 말이나 글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작고 미묘한 여러 감정이나 태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데에서 그 일차적인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언어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의 효과로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대화 상대의 관심과 흥미를 자아낼 수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대화 분위기에 맞게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대화 내용에 맞게 손짓과 몸짓·움직임을 보이면서 말하며, 말하는 상황·대화 분위기에 맞는 목소

리의 크기나 억양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극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가급적 밝고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그래.”, “응.”과 같이 소리를 내어 호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말하는 이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분위기에서 듣고, 침묵을 지키면서 말하는 이와 표정과 시선을 교환하며 듣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각 학년별로 교수·학습 방법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앞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학습자의 발달 특성에 맞춘 화법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보충·심화의 학습활동 내용이 더욱 세분화되고 풍부해질 것, 다른 영역과의 통합 학습의 경우 각 소단원 별로 별개의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습활동에 듣기·말하기·쓰기·읽기·국어지식 영역이 통합되어야 할 것,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화법 수업이 이루어질 것⁵⁴⁾,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선 언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언어 예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 등을 함께 제안해 보겠다.

54) 이러한 수업을 위한 구체적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생각 그물(Mindmapping)로 말하기’와 ‘보여주며 설명하기’를 들 수 있는데, 전자는 과제를 주고 마인드맵을 그려서 설명해 보이는 방법이며, 후자는 어떤 물체나 사진, 또는 그림을 보여주고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게 하는 방법이다.

2. 제 7 차 화법 영역의 종합적인 평가

앞에서 본고는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특징과 화법 교수·학습 방법상의 이론적 틀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과 교과서 단원과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분석 내용에서 보이는 화법 교육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 교수·학습 방안들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이제 본문에서 살펴 본 분석들을 통해 얻은 결론을 종합해 제시해 봄으로써, 교육과정 내용이 교과서에는 실제 어떤 점에서 잘 반영되었는지,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듣기·말하기의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은 전 학년에서 배운 학습이 다음 학년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위계성을 고려하여 전개되었다. 즉, 7학년에서 배운 ‘본질·원리·태도’의 학년별 내용이 8학년에 배울 ‘본질·원리·태도’의 사항에 선수 학습 요소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9학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먼저 ‘본질’의 경우, 7학년에서 ‘듣기와 읽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가 8학년에서는 ‘듣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로 이것이 다시 9학년에서는 ‘듣기가 사회·문화적 과정임을 안다.’로 심화·발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리’의 경우에도 7학년에서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한 이 후, 8학년에서는 ‘토론을 통하여 내용을 생성해 말한다.’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또 9학년에서는 ‘화제의 가치를 고려하여 논의할 선정하여 말한다.’와 관련된 학습활동을 수행한다. 이는 제 7 차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이 각 범주별로 체계화·위계화 되어 실제 교수·학습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⁵⁵⁾

둘째, 화법 단원과 학년별 내용을 분석해 보았을 때, 각 학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내용이 실제 단원에 비교적 잘 분포되어서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특히 7학년에 비해 8학년과 9학년의 교육 내용이 교과서에 고루 분포된 편이었다. 하지만 교과서 단원에서 지나치게 많이 제시된 학년별 내용이 있는가 하면, 교육과정에는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단원에는 드러나지 않는 학년별 내용도 있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7-말-(2) ‘다양한 매체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말한다.’, 8-말-(1) ‘말하기가 문제 해결 과정임을 안다.’, 9-듣-(4) ‘말하는 이에게 적절히 반응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 등이 있다. 또한, 후자에 해당하는 것에는 7-듣-(1) ‘듣기와 읽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8-듣-(2) ‘내용과 내용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지에 유의하여 듣는다.’, 8-듣-(5) ‘상대의 비판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등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듣기·말하기 학습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편중화되어 있는 몇 개의 교육 내용들은 교수·학습 시에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시정되어야 하며, 부족한 영역에 대한 학습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융통적으로 채택해서 이를 고루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듣기·말하기 영역과 쓰기·국어지식 등 다른 영역과의 통합이 이루어진 단원에서는 그 통합 교육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7학년에 9학년까지 화법 영역과 다른 영역이 통합되어 제시되어 있는 단원의 경우, 대부분 학습 내용에서 이들 영역을 교수·학습 방법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소단원 (1)은 ‘화법 영역’을 소단원 (2)에서는 그 외의 영역을

55) 국어과 화법 영역의 내용체계 자체에서 그 위계성이 잘 반영되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7-말-(3)의 ‘내용을 통일성 있게 조직하여 말한다.’와 7-말-(4)의 ‘응집성 있게 내용을 조직하여 말한다.’의 경우, 구체적인 학습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뿐더러, 응집성이 통일성보다 상위 개념의 학습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임의로 묶어 둔 것이어서, 이를 실제로 분석해 보면 두 개의 단원이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단원으로는 7학년 2학기 1단원 「생활과 글쓰기」⁵⁶⁾, 8학년 1학기 5단원 「목적에 맞는 말과 글」, 8학년 2학기 1단원 「보조 자료 활용하기」, 9학년 1학기 6단원 「남북한의 언어」⁵⁷⁾가 있다. 이러한 다른 영역과의 통합 학습이 중심이 되는 수업의 경우 각 소단원 별로 별개의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학습활동에 듣기·말하기·쓰기·읽기·국어지식 영역이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기를 한 후에 이것을 녹음을 해서 글로 적어보고, 그 자료에서 비문법적이거나 말의 순서가 바뀐 것 등을 바로 잡아 다시 발표하고, 그것을 서로 평가해 보는 활동 등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말하기·듣기·쓰기·국어지식 영역을 모두 활용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넷째, 각 단원을 구성할 때에 학년별 내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1학과 2학기 학습 내용간에도 그 위계성과 체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 7차 교육과정 국어과의 경우 학습자의 발달 과정에 따라 그 학습 내용과 방법을 달리하며 수준별 교육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실제 단원을 분석해 본 결과 같은 학년이라도 1학과 2학기에 배워야 할 단원의 위계가 일부 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7학년의 경우 1학기에는 「상황에 맞게 말하기」가 2학기에는 「판단하며 듣기」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

56) 이 단원은 소단원(1) '생활 속의 글쓰기', 소단원(2) '영화 소개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대단원의 경우, 교사용 지도서에는 '말하기·쓰기' 영역이라고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교수·학습 시에 이들 영역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소단원(1)이 '쓰기 영역'에 소단원(2)가 '말하기 영역'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7) 「남북한의 언어」 단원은 말하기와 국어지식 영역에 해당하는 단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소단원(1)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국어지식' 영역에, 소단원(2) '남북한 언어가 나아갈 길'은 국어지식 영역에 치중해서 단원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서 이 두 단원의 학습 순서가 바뀌는 것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수업을 유도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사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활동은 여러 가지 가변적 요소가 개입될 확률이 적은 반면, 상황을 고려한 말하기는 시간·공간적 배경이나, 화자의 심리, 청자의 태도 등 발화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8학년에서도 2학기 5단원 「발화의 기능과 표현」이 학기 마지막에 논의되는 것 보다 2학기 처음에 교수·학습되고 이 후에, 「재구성하여 말하기」와 「보조 자료 활용하기」가 이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단원 구성 체계라고 생각된다. 이는 학생들이 발화 상황에 대한 이론적 틀이 갖출 수 있다는 점, 발화 상황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미리 습득함으로써 이후에 학습되는 화법 단원에 대한 선수 학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순서이다.

다섯째, 화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 학습활동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요소인 언어 예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들이 친근히 여기는 인터넷 상에서의 언어 폭력성은 이미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성을 가장하여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와 학생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실제 피해 경험들을 수집한 이 후에,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함께 토의하는 형식의 수업이 필요하다.

여섯째, 화법 수업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의·토론 수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7학년에서 9학년까지 듣기·말하기 단원 중 토의·토론에 관해 깊이 있게 다룬 것은 하나의 단원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그 단원조차도 학생들이 토론하기에 적절한 주제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는 토의·토론만큼 적절한 수업은 없을 것이다. 고학년이 될수록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중요시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토의·토론은 학생들이 반드시 익혀야 할 학습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화법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토의·토론 수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익히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건문을 넓히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이상으로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법 영역의 학년별 내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 몇 가지 수업 내용에서의 개선안을 학년별로 마련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 7 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보이는 화법 영역의 전반적인 체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학교 수업에 충실히 반영되어 학생들의 듣기·말하기 능력이 향상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학습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또한, 어느 분야보다도 일상 언어 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듣기·말하기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화법 교육의 중요성을 학생 스스로 인식하도록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 학습이 되기를 제안한다.

V.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제 7 차 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전반적인 국어과 교육의 특징과 이 중에서 특히 화법 교수·학습 시에 반영되어야 할 여러 요소들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화법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을 제시하고, 이런 항목들이 실제 어떻게 교수·학습 시에 반영되는지 알아보는 작업이 중학교 「생활국어」 영역의 듣기·말하기 영역의 단원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년별로 효율적인 화법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했으며, 끝으로 이를 종합해서 각 학년별 교육 내용을 평가해 보았다.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또 그것을 교과서에서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화법 교수·학습의 기본이 갖추어지는 것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이 화법 수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효과적인 화법 교수·학습 방법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의 교수·학습 방안 외에도 ‘교과과정, 교과서, 교사, 학생’의 모든 학습 요소가 유기적으로 통합·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체계적인 듣기·말하기 교육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는 교육 내용을 충실히 화법 학습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충실

히 학습하되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화법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 이론들도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듣기·말하기 영역보다는 쓰기·읽기에 치우쳐서 이루어진 것을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반성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던 화법에 관한 다른 여러 교수·학습 방법들이 소개·개발되어 실제 학생들의 언어 생활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서>

[단행본]

교육부(1999),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1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1-1,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1나), 『중학교 생활 국어 1-1, 1-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2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2-1, 2-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2나), 『중학교 생활 국어 2-1, 2-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3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3-1, 3-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교육인적자원부(2003나), 『중학교 생활 국어 3-1, 3-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방한(1995), 『일반언어학』 형설출판사.

김중택 외(1998), 『화법의 이론과 실제』, 정림사.

김태자(1994), 『발화분석의 화행·의미론적 연구』, 탐출판사.

김희수(1994), 『화술의 이론』, 전남대출판부.

류성기(1998), 『국어과 교육의 실제화 연구』, 교육과학사.

문교부(1955), 『국민학교 교육과정』, 교육주보사.
 민현식(2000), 『응용국어학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박갑수 외(1996), 『고등학교 화법』, 한샘출판사.
 박명목(1996), 『국어교육학원론』, 교학사.
 박영목(2001),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박영수(1993), 『언어학개론』, 형설출판사.
 백용학(1993), 『화용론과 담화분석』, 동아대학교출판.
 변영계(2001), 『교수·학습이론의 이해』, 학지사.
 성환갑 외(2001), 『삶을 함께 하는 국어화법』, 동인.
 신헌재(1997),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박이정.
 염선모(1990), 『국어의미론』, 형설출판사.
 오주영(1998), 『화용론과 의미해석』, 경성대학교출판부.
 이기용(1998), 『언어와 세계 : 형식의미론』, 태학사.
 이대규(2001), 『국어교육론』, 교육과학사.
 이삼형(2001), 『국어교육학』, 소명출판사.
 이석주 외(2001), 『방송화법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이성범 외(2002), 『화용론 연구』, 태학사.
 이성범(2001), 『추론의 화용론 : 언어와 추론』, 한국문화사.
 이승명(1998), 『의미론 연구의 새 방향』, 박이정.
 이옥련 외(1996),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숙명여대출판부.
 이유빈(2001), 『말듣기에 강한 사람이 인간 관계에서 성공한다』, 느낌이 있는 나무.
 이은정(1995), 『고운 말 바른 표현』, 백산출판사.
 이은희(2001), 『텍스트언어학과 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익환(1995), 『의미론 개론』, 한신문화사.

이재승 외(1997),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이주호(1990), 『국어교육연구』, 학문사.

이주행 외(1996), 『고등학교 화법』, 금성출판사.

이창덕 외(2001), 『삶과 화법』, 박이정.

임영환 외(2001), 『화법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임지룡(1995), 『국어의미론』, 탐출판사.

장석진(1992), 『화용론 연구』, 탐출판사.

장홍권(2000), 『일반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정기철(2001),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역락.

정상권(2001), 『국어교육이란 무엇인가』, 해안.

정준섭(2001), 『국어교육사랑 1·2』, 대한교과서.

조규일 외(1996), 『고등학교 화법』, 천재교육.

차배근(1994), 『화법과 커뮤니케이션』, 집문당.

최인자(1994), 『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출판사.

최현섭(2002),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하길중(2001), 『언어수행론 연구 : 발화에 대한 청자의 수행과 언어외적 요인』, 국학자료원.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2001), 『말하기 듣기 수업 방법』, 박이정.

한국화법학회(2000), 『국어 화법과 대화 분석』, 역락.

홍사만(1994), 『국어의미론연구』, 형설출판사.

[학위논문, 소논문 및 기타]

강성도(1988), 「중학교 말하기·듣기 지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 논문.

구자훈(2001), 「화법 교육 내용의 분석과 평가」, 부산대학교 석사 논문.

구현옥(1998), 「화법 지도의 절차 모형 수립을 위한 연구」, 『언어와 언어교육』, 동아대학교 어학연구소.

권정애(2002), 「중학교 국어과 말하기 수행 평가 방안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34집, 국어교육학회.

김명희(1993), 「화법지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 논문.

김상돈(1999), 「국어화법 교육의 이론적 토대」, 『외국어문논집』 제14권, 부산외국어대학 어학연구소.

김영대(1999),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 논문.

김정훈(2001), 「화법 교육과정의 분석과 평가」,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모종표(1985), 「말하기 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 논문.

여승현(2002), 「중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원진숙(2001), 「교사 화법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국어교육학 연구』 제13호.

이경숙(2000), 「고등학교 국어과 화법 교육 연구」, 강원대 석사 논문.

이정만(1991), 「중학생 화법지도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 논문.

이주섭(2001), 「상황맥락을 반영한 말하기·듣기 교육의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 논문.

이혜경(2001), 「화법에서 비언어성」, 『인문논총』 제5호, 건양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임정희(2003), 「중학교 말하기 영역의 내용 분석」,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정희자(2001), 「의사소통과 추론」, 『외국어문논집』 제16권, 부산외국어대학 어학연구소.

<국외서(번역서 포함)>

Alan Cruse, 임지룡 외 역(2002), 『언어의 의미 : 의미, 화용론 개론』, 태학사.

Bryan Martin, 윤희원 역(1999), 『좋은 화법과 화법 지도』, 교육과학사.

E. Coseriu, 허발 역(1997), 『현대 의미론의 이해』, 국학자료원.

G. Lakoff, 이기우 역(1994), 『인지의미론 : 언어에서 본 인간의 마음』, 한국문화사.

George Yule, 서재석 외 역(2001), 『화용론』, 박이정.

H. H. Stern, 심영택 역(2002), 『언어교수의 기본개념』, 하우.

John Nisbet 외, 이신동 외 역(2001), 『학습전략과 교육』, 교육과학사.

L. Mey Jacod, 이성범 역(1996), 『화용론』, 한신문화사.

M.A.K Halliday, 이충우 외 역(1993), 『언어과학과 언어교수』, 국학자료원.

Rene Dirven, 이기동 외 역(1999), 『언어와 언어학 : 인지적 탐색』, 한국문화사.

Schwarz Chur, 문미선 역(1996), 『새로운 의미론』, 한국문화사.